

윤석열 대통령,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한국잡월드에서 올해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과 오찬을 갖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이날 오찬에는 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50명)과 지도위원(40명)들이 참석했으며, 후원기업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역대 대통령으로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회 전에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한 바 있는데, 이날 오찬은 훈련장 방문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22세 이하(일부 직종 25세 이하) 청년 기술인들이 참여하여 용접·가구 등 전통 종목부터, 사이버보안·클라우드컴퓨팅 등 IT 종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는 전 세계 60개국 1,015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6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었다.

우리나라는 46개 종목에 51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대회 막판까지 중국, 대만과 우승을 다툰 끝에 종합 2위를 달성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출전한 46개 종목 중 44개 종목에서 입상(우수상 이상)해 다시 한번 기술강국의 위상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여러 차례 대회가 연기되어 마음 졸이면서도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오랜 시간 선수들과 함께한 지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며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기술'과 '인재'가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청년 기술인재의 양성과 숙련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랜 세월 기능올림픽 선수들을 후원하고 채용해 온 기업들에 감사사를 표하고 지속

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한국잡월드 안에 있는 청소년직업체험관에 둘러 직업과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청소년들과도 인사를 나눴다.

최광수기자

환경부,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44종을 한눈에 봅니다

외래곤충 사진, 위해성, 생태 정보 등을 수록한 생태도감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곤충 44종의 정보를 담은 '외래곤충 생태도감' 자료집을 12월 20일 발간한다.

이번 자료집은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한 '외래생물 정밀조사'와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예찰 및 신고센터 운영' 연구사업의 하나로 제작됐다.

책의 구성은 곤충의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원산지, 국내외 분포 및 지정현황, 위해성 등을 설명했다.

바퀴목 1종, 메뚜기목 1종, 총채벌레목 1종, 노린재목 15종, 딱정벌레목 9종, 벌목 3종, 파리목 2종, 나비목 6종과 더불어 수입 화물에서 확인된 벌목 6종 등 외래곤충 44종에 대한 300여 장의 사진을 함께 소개하여 이해를 도왔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자 국내에서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붉은불개미, 아르헨티나개미, 긴다리비틀개미를 비롯해 다양한 생태계교란 곤충의 사례를 담았다.

국립생태원은 외래곤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된 침입 외래생물에 대해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등 지속적으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외래생물 신고센터(041-950-

5407)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 등 외래생물을 발견할 경우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관계기관, 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국립생태원 누리집,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 등에 12월 20일부터 전자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공개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기후변화 및 국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위험한 외래곤충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번 자료집은 외래곤충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종 동정*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경북도, SK스토아와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협약 체결

신유통 채널 T-커머스 통한 농특산물 인프라 확대 구축 SK스토아 입점확대 및 판촉강화로 농가 소득향상 기대

경상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SK스토아 윤석암 대표,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K스토아와 T-커머스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T-커머스는 TV홈쇼핑과 데이터 쇼핑이 합쳐진 양방향 쇼핑 서비스로, 2017년 12월 설립된 SK스토아는 이러한 T-커머스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업계 대표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고 마케팅 활성화 및 판로확대 지원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서 경북도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생산과 판매활성화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SK스토아는 마케팅, 기획 할인행사 지원과 우수 농특산물 발굴에 협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암 SK스토아 대표는 "전국 최

고의 농산물 생산지인 경북의 우수 농산물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지속 가능하고 가치 있는 소비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커머스 시장을 이끌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SK스토아와 업무협약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농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첨단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장 선도기업인 SK스토아와 협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환경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선다

환경부는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실천지침의 주요 내용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

또한, 이번 실천지침 개정으로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에서는 재사용되는 다회용컵 또는 재활용체계를 갖춘 일회용컵을 이용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반납 및 보증금 반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간이회수기 26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2023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2023.1.14.(토) ~ 15.(일)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2023 청송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2023.1.7.(토) ~ 8.(일) 청송 얼음골 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 최: 국제산악연맹, (사)대한산악연맹

주 관: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

수원특례시의회, 스마트시티 청년복지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마트시티 청년복지 연구회(대표의원 김동은)'가 19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지난 9월부터 수원시 청년복지를 위한 스마트시티 구성을 큰 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는 스마트시티 내 4차 산업 시대에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육성 기반 청년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의 연구 진행 결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 및 정책 제언이 이루어졌다.

이대선 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을 하며 발굴된 의미있는 결과물을 실제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여 실제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승 의원은 "요즘 청년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또는 취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원시에서 청년 창업 공모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은 대표의원은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청년 복지 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에 수원시에서 담당하지 않던 분야이지만 미래를 이끌 청년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본 연구단체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연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스마트시티 청년복지 연구회'는 김동은 대표의원을 비롯한 국미순·김은정·사정희·이대선·이희승·정영모·최정현 등 8명의 시의원이 활동했으며, 이날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3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충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출

복지사각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 생활보장 제도 도입·종사자 처우개선 등 제안

충남도의회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 충남도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충남 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및 실무자 및 전문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을 통해 ▲충남형 국민생활보장제도·실업부조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인 복지전담팀 모니터링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충남 지역 맞춤형 복지팀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복지 사각



지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지역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대구시의회, 2022년 의사일정 마무리

대구광역시의회가 12월 20일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위원회별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한 뒤, 11월 7일부터 44일간 이어진 제297회 정례회와 2022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내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8건, 제·개정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승인안 11건, 계획안 등 14건 총 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70곳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전반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증하는 한편, 군위군 편입,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군부대 이전 추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건설사업, 문화예술진흥원의 정상 운영 촉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3년도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대구시는 제출예산액 대비 112억원 감소한 10조 7,307억 원, 시교육청은 제출예산액 대비 규모 변동없이 4조 3,922억 원을 각각 수정안가결 시켰다.

그 밖에 제·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29건, '수정안가결' 3건으로 처리했다.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0명 이상

사업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안가결 했다.

대구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일(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윤근수/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도의원, 제6회 무등 의정대상 수상

100만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 육성기반 조성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15일 출라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6회 무등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혁신비전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거버넌스학회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무등의정대상'은 참신한 의정 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광역·기초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남의 미래를 함께할 100만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 육성기반을 조성했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와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귀농·귀촌인 성공적인 정착방안 마련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해 왔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수상이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박원종 의원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민생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대표의원,남도역사관광연구회 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병수/기자

장흥군의의회,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 통과

장흥군의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조례로 청구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월 13일, 장흥군 풍력·태양광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전라남도 1호 주민조례청구로써, 청정한 자연환경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발전시설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고자 청구됐다.

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주민 2,042명의 청구인 명부를 장흥군의의회로 제출했다.

군의의회는 접수된 주민조례 청구에 대하여 군의회 내 연구모임인 G.T.S(Golden Time Study)와 연계해 군민대책위원회와 3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난개발된 발전시설 현장도 방문하는 등 협의해 나갔다.

지난 12월 5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결과, 그 동안 군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고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 제한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부터

터 반경 300m 안에 입지 제한 ▲경지정리 및 대체농지 사업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제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위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형일 기준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에게 확인을 받도록 규정 ▲풍력발전시설은 5호 이상의 가구나 가축 및 사육시설로부터 2km 안에

입지 제한 등이 있다.

왕윤채 의장은 "전라남도 1호로 발의된 주민조례청구를 의결하게 된 사실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군민의 어려운 점은 직접 보고 느끼며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무안군의의회, 2022년 마지막 회기 의사일정 마무리

무안군의의회는 지난 12월부터 8일간 운영된 제284회 임시회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2월 16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배 의원님)에서는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기정예산 대비 417억원(5.45%)이 증액된 8,088억원 규모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경현 의장은 "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과 무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군민과 함께 의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열린 의정, 책임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개원한 제9대 무안군의의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58일간 회기 운영을 통해 조례안 등 총 65건의 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정광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류석.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록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대전 (112) 문화부:대전 (116)
 사회부:대전 (113) 부동산부:대전 (117)
 경제부:대전 (114) 오피니언부:대전 (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대전 (115) 지방부:대전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천구 청소년CEO, 프리마켓 수익금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

금천구는 12월 16일 '청소년CEO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창업 아이템을 판매한 수익금 905,000원을 금천미래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진로 역량을 개발하고 경제 관념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CEO 프로젝트'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시립금천청소년센터와 함께 3월 참가자를 모집해 12~19세 학생 22명이 참여했다.

5개의 창업 동아리를 구성해 창업 체험 교육,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사고와 경제적 지식을 배웠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금천청소년 연합마당에서는 청소년CEO가 직접 제작한 음료, 액세서리, 방향제, 무드등, 그림책 등 15종 아이템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운영했다.

프리마켓은 온라인으로도 12월 1일부터 8일까지 운영했다.

프리마켓 판매수익금은 금천미래장학회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소년들이 창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 경관조명 밝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경관조명으로 밝아진 신촌



▲ 19일 신촌 연세로의 경관조명이 거리를 화려하게 밝히고 있다. 서대문구청과 우리은행이 함께 설치한 연세로 경관조명은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된다.

서대문구는 우리은행과 함께 연세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BTS, 블랙핑크 팬덤 협업 이벤트존을 운영하여 연말연시 신촌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올해 연세로 경관조명은 밤하늘 가득 별과 행성이 떠 있는 우주를 연상시키는 듯한 형태도 연출됐으며 이달 19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BTS, 블랙핑크 팬덤 협업 이벤트존이 이달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스타광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경관조명 설치와 함께 한층 따뜻하고 밝아진 분위기로 신촌이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성동구, 도로 하부 빈 공간 사전탐사로 땅꺼짐 막는다

성동구 도로함몰 등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空洞) 60개소 복구 완료

서울 성동구는 도로함몰 등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탐사에서 도로 하부 빈 공간인 공동(空洞) 조사 및 복구를 완료했다.

성동구는 관내 도로 중 직경 500mm 이상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120.57km에 대하여 탐사를 실시했고 땅꺼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동(空洞) 60개소를 확인하여 복구를 완료했다.

공동(空洞)은 도로 포장체 하부 지하공간 내 생긴 빈 공간을 의미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지하시설물의 파손 ▲도로 굴착·복구 시 다짐작업 미흡 ▲건축공사장 주변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 미흡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동이 시간이 지나 포장체가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 도로함몰이다.

성동구는 관내 도로 중 직경 500mm 이상 지하시설물이 매설되어 있는 도로 120.57km에 대하여 탐사를 실시했고 땅꺼짐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공동(空洞) 60개소를 확인하여 복구를 완료했다.

공통(空洞)은 도로 포장체 하부 지하공간 내 생긴 빈 공간을 의미하며,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지하시설물의 파손 ▲도로 굴착·복구 시 다짐작업 미흡 ▲건축공사장 주변 지하수에 대한 차수대책 미흡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공동이 시간이 지나 포장체가 가라앉으면서 생기는 현상이 도로함몰이다.



강성원/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도로함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동구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로 120.57km에 대하여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투입해 도로 하부 공동탐사를 실시했다.

탐사 결과 확인된 공동 60개소에 대하여 천공 및 내시경 영상 촬영을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 새해의 액운 쫓고 복기원하는 동지맞이 '세시올림-동지 동계별장' 개최

12월 22일 '동지' 당일, 남산골 세시올림-동지 '동계별장' 개최

남산골한옥마을은 12월 22일 동지를 맞이하여, 동짓날 당일인 12월 22일에 남산골 세시올림-동지 '동계별장'을 개최한다. 추운 겨울 따스하게 쉬어갈 수 있는 '동계별장'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액운을 쫓고 복을 누리며 일년 중 가장 긴 밤을 보냈던 옛 선조들의 '동지나기' 전통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전통가옥 마당에서는 귀신을 물리치는 ▲'벽사(辟邪, 귀신을 물리침)'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되고, ▲동짓날 지신밧기와 ▲동지부적만들기 ▲소원나무 적기가 진행된다. 또한 한옥마을 입구에서는 이웃과 새해 희망을 나누는 풍습을 살린 ▲동지책력 나누기 ▲팔떡나눔도 진행된다.

옛 선조들은 '벽사(辟邪, 귀신을 물리침)' 공연으로 한 해의 복은 액운을 신명나게 떨쳐버리곤 했다. 이에 남산골한옥마을 전통가옥 마당에서 '벽사' 공연 중 △지신밧기와 △사자춤을 개최하여 한 해의 액운을 떨친다.

또한, 전통가옥 마당에서는 '동지부적'을 만들고 '소원나무'에 소원을 적으면서 액운을 쫓고 소원을 빌어 볼 수 있다. '뱀 사(蛇)'자를 거꾸로 붙이는 '동지부적'은 악귀를 쫓고, 뱀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풍습이다. '소원나무'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소원지에 적고 새기술에 묶어 새해 복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이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작성된 소원지는 2023년 2월,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에서 태워질 예정이다.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은 남산골한옥마을 정문에서 시작하여 마당~장독대~부엌~대청마루 등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동짓날 지신밧기'가 개최된다. (사)쇄대쟁이패보존회가 참여하여 땅을 밟으면서 잡신을 쫓고 복을 불렀던 세시 풍습을 재연한다.

이어 12시부터는 연희동추리의 '액운타파 사자난장'이 이어진다. 나쁜 액운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벽사진경 (辟邪進慶, 귀신을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함) 의미를 복서사자놀음의 사자춤과 봉산탈춤의 사자춤 등 각 지역의 사자춤으로 시민들과 함께 액운을 쫓는 시간을 갖는다.

한옥마을 입구에서는 새해 달력을 나누던 '동지책력'과 잠귀를 쫓기 위해 팔을 먹었던 '팔떡나눔' 풍습을 만나볼 수 있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 2023년 계묘년을 맞아 검은 스킨과 한옥마을 프로그램을 담은 삽화 달력을 제작했다. 달력과 팔떡은 누리소통망(SNS) 구독 또는 설문 조사 참여자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이 외에도 '윤택영재실 사랑채'에 캠핑 포드존과 불멍을 할 수 있는 전자 모닥불등을 설치하여 동계별장에서 쉬어가며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팡팡플레이존'을 조성한다. '윤택영재실 안채'에는 동지 관련 퀴즈를 맞히고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팔떡

곳간'을, '김춘영 가옥'에는 추억의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춘영오락관'을 운영한다.

남산골 한옥마을은 총 부로 총 4면 로부터 5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통가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동지 프로그램 외에 전시도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집 또는 남산골한옥마을 누리소통망(SNS)을 참고하면 된다.

세시올림 동지-동계별장 이외에도 유리공예, 도자공예, 한국화 전시인 남산골하우스뮤지엄 '한옥담달: 한옥, 기다림을 닦다'와 신진 예술가 공모 사업인 남산골아트랩 '24:하루사이'를 12월 25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김흥진 서울특별시 문화재관리과장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을 맞아 한 해의 액운을 날려버리고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세시풍속 행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재개하는 남산골한옥마을의 동지행사와 함께 선조들의 전통이 함께하는 뜻깊은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수/기자



마포구, 공무원 이름 걸고 주요정책 투명하게 추진한다

2022년 마포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1개 구청 누리집 통해 공개

마포구가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1개를 선정하고 사업개요, 추진과정과 담당 공무원 및 참여자 등이 기록된 '정책실명제 사업내역서'를 마포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추진과정을 기록·관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올해 구가 공개한 대상 사업으로는 ▲공약사업 및 구 역점사업 25건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건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1건이다.

특히 생활체육시설 연중무휴 개방,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및 입산부지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한 햇빛센터 건립 같은 구민의 관심이 높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들을 공개해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또한, 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외에도 구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발굴해 구민들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상순/기자

송파구, 지구도 행복한 '그린 크리스마스' 만들어요!

송파구 잠실2동, 컵홀더 및 옷걸이 등 폐품 활용해 크리스마스 장식

송파구는 연말연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고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잠실2동에서 '그린(Green) 크리스마스(Christma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잠실2동은 많은 주민들이 축제처럼 보내는 크리스마스를 활용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은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재활용 작품 전시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동주민센터 입구 소나무에 300여 개 페트병을

이용한 꽃장식을 달아 트리 스마스트리를 만들었다. 나무에는 "부자 되기", "연애하고 배우자 찾기", "가족들 행복 건강하길" 등 주민과 직원들이 바라는 새해 소망을 달았다. 소망지 작성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패헌수막으로 제작한 장바구니를 증정한다.

또, 동주민센터 민원실에는 버려진 옷걸이와 컵홀더를 활용해 소형 트리과 리스(wreath, 화환) 장식품을 만들어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동주민센터 외부에 재활용 쓰레기 조형

물을 설치했다. 해당 조형물은 잠실2동의 일평균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 33톤 중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30% 규모인 500kg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해당 전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계속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환경을 생각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통해 주민들이 의미 있는 연말을 보내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와 자원활용 사업을 펼쳐 송파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수원특례시, 시민을 위로하고 미래를 준비했다

민선8기 공약 실천 체계 구축 등 2022년 시정 주요 성과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이 어느새 열을 남짓 남았다. 코로나19 확산의 긴 터널을 지나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감염병 확산의 두려움이 조금씩 일상 회복의 희망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의 2022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놓는 기간이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려는 민선8기 기초를 다지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의 첫 발을 디뎠다. 시민에게 축제로 일상 회복의 즐거움을 선물했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영흥숲공원의 개장은 더 푸르른 일상을 가까이서 즐기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수원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도왔다.

◇민선8기 공약 실천 체계 마련

올해는 수원특례시와 민선8기가 출발한 해다. 수원특례시의 첫 페이지를 성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원시는 민선8기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공약과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내세운 민선8기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와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거쳐 90개의 공약을 다듬었다. 50개의 약속사업과 40개의 희망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3대 목표로 체계화해 지난 10월5일 비전포식에서 발표했다.

3대 목표 중 첫째는 ‘탄탄한 경제특례시’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를 향해 22가지 공약사업이 설계됐다.

두 번째 목표는 ‘깨끗한 생활특례시’다. 여기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걸음,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도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계획이 차곡차곡 담겼다.

세 번째 목표는 ‘따뜻한 돌봄특례시’다.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집약됐다.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수원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시 ▲문화와 스포츠 도시 등 세 가지 전략으로 33개 과제를 총총하게 담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유망기

업 투자유치 ‘시동’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목표를 널리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스디바이오센서(주)와의 투자협약 체결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취임한 첫 날(7월1일), 첫 번째로 사인한 결재가 바로 기업과의 투자협약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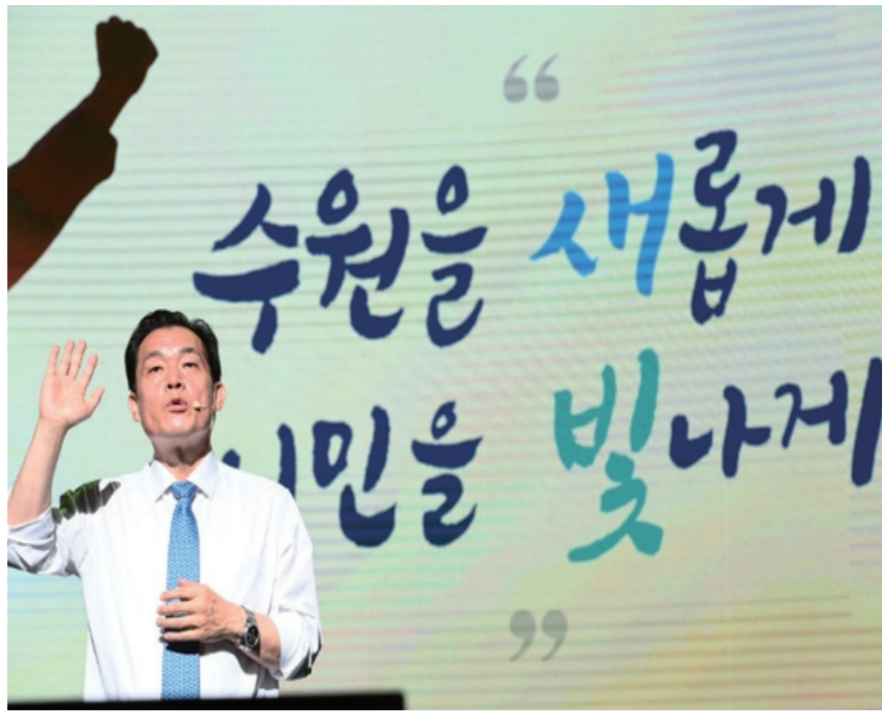
이날 협약은 수원시는 7426.2㎡ 규모(2필지) 부지를 공급하고, 에스디바이오센서(주)는 광고지구내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였다. 체외진단기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주)는 적극적인 투자로 연관기업 투자유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수원시는 본사·연구소 이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특례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위해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은 ▲국·공유지 유희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를 위해 기업인과의 원탁토론회, 지역내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기업인들과의 막걸리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쌓고 있다.

◇3년 만에 부활한 축제들, 시민을 자유하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올 한 해 다양한 축제가 기획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일상을 잃고 긴 터널을 지낸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연극축제, 발레축제, 문화제야행 등이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지난 5월20~22일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담동시민농장에서 ‘숲 속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열린 연극축제는 자연친화적이며 실험적인 현대 공연문화의 정수를 보여줬다. 발레축제는 8월18~21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국내 최정상급 발레단의 수준 높은 발레공연으로 늦여름 밤을 수놓았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2022 수원 문화제 야행은 8월12~14일 화성행궁과 행궁동 일원에서 ‘기억’을 주제로 수원과 수원화성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



이웃의 모습과 역사를 담았다.

특히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달 동안 진행했던 4개 가을축제 ‘힐링플링 수원화성’은 관광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며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들였다. 수원화성과 수원천을 캔버스 삼은 미디어아트쇼, 수원화성의 축성과 성 안 사람들을 조명하는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우중에도 시민의 열정을 꽃피운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행차 공동제헌 등이 수원의 이름을 높였다.

◇‘최초의 민간개발공원’ 영흥숲공원, 시민의 품으로

수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흥숲공원이 올 해 시민들을 향해 활짝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26일 공식 개장한 영흥숲공원은 축구장 70개 넓이(50만 1937㎡)다. 산책길, 어린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 전망데크는 물론 평상·파고라 등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바닥분수, 생태숲 체험 공간 등도 만들어졌다. 체육관, 축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도 갖췄다.

영흥숲공원은 수원시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최초의 공원이자, 1969년 공원이설로 지정됐으나 재정부담으로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해 조성한 공원이다. 201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공사가 시작돼 2년여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수원시는 올해 초부터 영흥숲공원 개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꼼꼼한 사전점검을 거쳐 10월부터 산책로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임시 개방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2단계 공사와 수목원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

수원시는 올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수원시가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년간 240억원의 국비를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수원시는 2026년까지 국비 240억 원·도비 48억원·시비 112억원 등 총 400억 원이 투입해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의 모델을 만든다. 목표는 온실가스 30% 감축하는 것이다. ▲플러스에너지 행정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그린수소 탄소중립 모빌리티 ▲탄소중립가는 탄소상쇄술 ▲도심 온도 낮추기 기후센터 ▲폐기물 관리 레인시티 수원 ▲탄소비서 씨엔(C.N) 등 7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탄소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환경수도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서도 대상지로 선정돼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행궁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주차장 구축 운영’을 주제로 응모한 수원시는 약 천여나 심야에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적용한 똑똑한 주차장을 만들어 스마트도시로의 한걸음을 더 나아가갈 수 있게 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 분 한 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새로운 수원의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카타르 월드컵 16강 영웅 김영권 선수, 부천시청 방문

조용의 시장 “김영권 선수가 대한민국과 부천에 준 큰 희망에 감사”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 기적을 이끌었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영권 선수가 19일 부천시청을 방문해 월드컵 기간 동안 펼쳐졌던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김영권 선수의 방문은 부천시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김영권 선수는 “이렇게 크게 환대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부천시청님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카타르 현지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열심히 응원해주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러한 응원을 통해 힘을 얻어 열심히 한 결과로 16강을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팬 여러분들이 함께해야 한국 축구가 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며 당부의 말을 남겼다.

환영 행사에 함께한 조용의 부천

시장은 “김영권 선수가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데에 제일 큰 역할을 했다”며 운을 띄운 뒤 “김영권 선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김영권 축구클럽(YG FC)을 창단해 부천에서 활동하는 등 부천의 축구 영재 발굴 및 육성과 축구 문화 확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영권 선수와 부천시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 여건 등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김영권 선수가 대한민국 국민과 부천시민에게 큰 희망을 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김영권 선수가 할 축구선수로서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축구선수를 마치고 축구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부천시와 부천시민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김영권 선수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용민/기자



안양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통합방위 역량강화”

안양시는 16일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2022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유사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민·관·군의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는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장인 최태호 안양시장과 167여단 3대대장, 안양소방서장, 만안·동안경찰서 관계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3분기부터 다시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인사 △2023년 예비군 육성 보조금 지원 △167여단 3대대의 예비군 드론 운용 확대방안 등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태호 안양시장은 “지역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군·경 모두가 더욱 협력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0·29 참사를 언급하며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평시에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우용/기자

광명시, 행정안전부'2022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시책 분야서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특교세5,000만 원 성과급 지원

광명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 우수시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고 19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으로 광명시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맞춤형 공유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다”며, “더 적극적인 시 공공자원 개방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공유도시 광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실적평가’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 서비스 품질향상, 맞춤형 시책 등을 평가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서류심사, 이용자 만족도 평가, 국민평가단 만족도 등을 평가했으며,



지난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에서 진행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협치와 협업으로 공공자원 개방 활성화하다’를 주제로 ▲공유기업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 ▲공유스쿨 ▲공공자원 발굴 ▲민·관·협치 ▲홍보 사업 추진실적을 발표했다.

특히, 텃밭 분양, 체육시설, 창업코워킹 시설 등 기관별, 자원별 접근으로 21년 말 대비 55% 증가시켰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포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속의 토론회 등 민과 관이 함께 공공자원 개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윤용민/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15일 '2022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조사업자 및 관계공무원 총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성시에서는 올해 68개 사업, 97개소(총사업비 48억8천만원)의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했으며, 종합평가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 추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보고된 우

수사례 등은 적극적으로 시책화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정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농촌진흥사업은 작년 대비 30% 이상 증액을 통해 총 97개소의 사업을 추진해 2022년 우수농업기술센터 선정 등 좋은 성과가 많았다"며 "코로나19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우리 농업을 일궈주신 농업인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풍요로운 안성 농업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수도권 주민의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요인은 개인의 배경"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경기연구원,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발간

수도권 주민 10명 중 7명은 한국사회 성공요인으로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 소득 등 개인의 배경을 지목했으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득·부채 분배 등 '결과의 평등'이 아닌 교육·금융 정책 등을 통한 '실질적 기회 평등'이 더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성인 1천31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진학, 취업, 소득이나 부 등 사회경제적 성취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질문했고, 수도권 성인의 72.2%(744명)가 개인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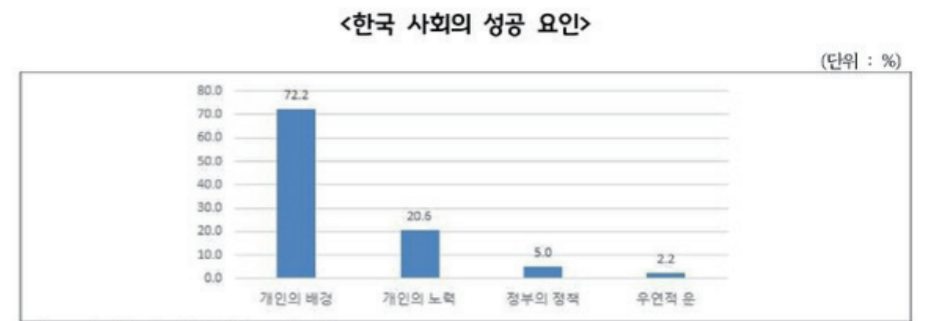
반면 개인의 노력은 20.6%(212명)에 불과했고, 정부의 노력은 5.0%(52

명), 우연한 운은 2.2%(23명)로 나타났다.

불평등이나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과 금융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하는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이 34.8%, 혈연·학연·지연·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방지하는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27.6%, 소득과 부채 재분배하는 '결과의 평등' 정책 21.0% 순이었다.

이와는 다른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책이 가장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37.4%, '형식적 기회 평등' 정책 33.6%, '결과의 평등' 정책 13.2% 순이었다.

연구원은 커먼즈(communs)의 사전적 정의인 '보통 사람' 또는 '공동의 자원'을 이용해 커먼즈 정책을 '보통 사람의 실질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자원 및 서비스 정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영역에서



자료: 경기연구원 설문조사(2022년 11월)

는 교육, 금융, 디지털 자산(데이터, 오픈소스, 플랫폼 등), 정보통신, 교통 등의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라는 경기도정의 슬로건처럼 기회 정책이 경기도 및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되려면 기회 정책의 철학, 구조, 시스템 등 프레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 정책의 철학으로 보통 사람을 위

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이 필요한데, 기회 정책의 구조로 보통 사람의 '좋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기회 정책의 시스템으로 '기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보편성 등 '기회 정책의 원칙'의 정립, 아동·청년 등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 선정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부천시 사회적경제기업(주)오즈하우스, 지역활성화 대상 수상

부천시는 지난 16일 강남파미엔스 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에서 부천시사회적경제기업인 (주)오즈하우스가 지역활성화 부문 행정안전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한민국 e-마케팅페어'는 중소기업, 마을기업, 농축산물 관련 기업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해 G마켓이 이커머스 업체 최초로 시작한 국내 유일 온라인 박람회로,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서울통상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주)오즈하우스는 행정안전부가 시상하는 지역활성화부문에서 '리사이클 아일랜드'를 비롯한 환경교육 교구와 보드게임 등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와 환경교육에 공헌한 바가 인정되어 대

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2011년에 설립된 (주)오즈하우스는 만화, 디자인, 영상 등 콘텐츠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으로, 2011년 마을기업 지정 및 2016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당탕 환경운동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강사 100여명을 양성해 누적 교육 인원은 5만여 명에 이른다.

(주)오즈하우스 신방식 대표는 "이상은 지역 활성화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용민/기자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 지원은 친절과 안전부터" 결의 다져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지원센터는 친절 운행과 교통안전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평일 주간(09:00 ~ 18:00) 시간대 전면 즉시콜 시행을 앞두고, 교통약자지원센터 전 직원이 교통약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친절안전 결의선언 전서를 받은 신규직원 두 명의 '우리의 결의'에서는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며 교통약자를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임할 것을 선언했다. 무엇보다도 교통약자의 행복과 감동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가슴에 새겼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명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휠체어 승·하차를 시연했다. 안전장치 체결에서부터 탑승과 하차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안전과 편의에 문제가 없는지 직접 체험하며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명호 사장은 "교통약자의 발이 되고자 그간 힘써온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언제나 변함없는 친절과 안전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신유용/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교육연구원, 21일 '청소년 성건강관' 공동포럼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교육연구원과 21일 오후 3시 '경기도 청소년 성건강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공동포럼은 매년 양 기관이 번갈아가며 주최하며, 올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과 박정일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양 기관의 청소년의 월경권 연구를 주제로 정해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여

성청소년의 월경실태와 향후과제'를, 김현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도 초·중등생 대상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초·중등학생의 인식'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좌장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희경 정자중학교 학부모회 대표, 김시연 서원고등학교 학생, 최순영 경기도여성대상임대표가 참여해 월경권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성과 재생산 권리로서의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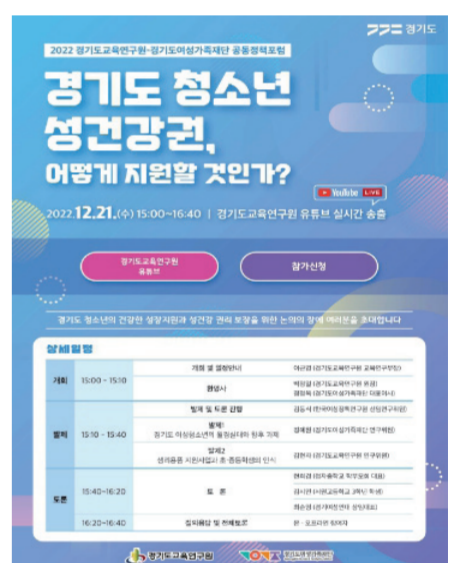
이날 포럼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사전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참가 이벤트도 개최, 도민 참여를 높이고 경품도 증정한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여성청소년들의 월경과 건강문제는 인권의 문제인 동시에 피임, 임신·출산 등을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권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포럼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지속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올해 현안 과제로 '경기도 성·재생산권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 중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교육기부 활성화 위해 전문가와 머리 맞대

2022 교육기부 자문위원회 개최로 추진 성과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16일 2022년 교육기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교육자원봉사 활동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기부 자문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교육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확산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2년 교육자원봉사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3년 운영 계획과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담당자와 자문위원 간에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2년 사업성과로는 ▲자원봉사자 및 참여 학교 수 확대(9월 기준 자원봉사자 1,010명, 504교 참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봉사

영역 확대 ▲자원봉사 동아리 운영 ▲교육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했다.

2023년 교육자원봉사는 ▲교육자원봉사 현장 지원 강화 ▲교육자원봉사센터 내실화의 2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자원봉사자 인력풀 확충과 전문성 강화 ▲현장 수요를 반영한 봉사동아리 운영 활성화 ▲센터 공간을 활용한 교육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로 학교 밖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도교육청 윤성희 학부모시민협력



과장은 "교육자원봉사와 교육기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경

험을 다양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분야 2023년도 예산 546억원 증액 의결

경기도의회는 내년 본예산 최종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예산안 5,079억원에서 546억원이 증액된 5,625억원으로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도 일반회계 세출 편성액 29조 9,265억원 대비 1.7% 수준이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이 최종 의결액(도 일반회계 29조 9,770억원) 대비 1.88%로 약 0.18%p 상향됐다.

2023년도 집행부 제출 예산액은 5,079억원으로 도민 1인당 예산액이 37천원이었지만, 의회 심의를 통과한 의결액 기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41천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과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기존 시군 매칭 사업비를 삭감하고, 도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여 각각 54억원과 27억원을 증액시켰고, '체육진흥' 사업은 공모사업과 유아체육지도자 등을 확대하여 41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사업'으로 279억원을 예결위 심의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부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코로나 이

후 도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 분야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규모가 작년 대비 삭감되어 우려가 컸지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대폭 증액되어 조금이나마 도민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한마음이 되어 증액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광현 부위원장은 "이번

증액된 예산이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문화관광레저 활동에 적합하게 집행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증액된 예산이 소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 의결된 경기도 내년 예산 규모는 경기도 예산안 29조 9770억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 4192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 3345억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 5,641억원 등이다.

조혜영/기자

가르침 나누고 사랑 나누고...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외부 강의로 전액 기부

용인특례시, 4회 외부특강으로 받은 164만원 모두 기부...연말 '사랑의 열차'에 동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대학원 등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전액 164만1600원을 시 연말연시 이웃 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기부했다.

이 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 지난 10월 25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10월 27일 용인대 경영대학원 CEO과정, 12월 1일 용인대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의 리더십과 상상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경기대 교육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과 문학으로 읽는 인간과 인생'을 주제로 강연을 하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강의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특강 외에 관내 노인대학, 시민들의 초청을 받아 재능기부 차원의미술 관련 특강을 10여 차례 진행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인문 분야 '휴먼 북'으로 등록, 지식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이 시장은 "평소 미술, 문학, 음악 등을 좋아해 관련 공부를 틈틈이 해 왔는데 배운 지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시작된 용인의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19일 현재 5억5000만원이 모금돼, 시작 20일만에 목표액 11억원의 50%를 달성했다.

조혜영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2023년 희망화성의 초석 다지는 해로 만들 것"

정명근 화성시장은 19일 "2023년을 지역경제 살리기와 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대비하는 행정을 구축하는 한편 2023년을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화성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시장은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예년과 같은 1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3,000억 원이기에 300억 원의 예산을 지역화폐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이어 기업 유치와 관련해 "올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ASML의 착공식이 진행 된 것처럼 화성시에 지속가능한 기업, 우수한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성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각종 규제의 축소는 물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어디서 살더라도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서남부권에 생활 기반 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의 생활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화성의 동부와 서부가 완전 수평적 균형은 어렵지만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점차 확충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내년에 수소충전소 14개로 늘린다

수소버스 119대 포함 수소차 2,127대 보급, 수소충전소 8개 신규 확충키로

인천시가 내년 수소차 2,127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8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광역시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분 수소 전환을 가속화 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송분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6만대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승용형 수소차인 '넥쏘' 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 수소버스와 2021년 수소화물차 시범 도입 등 매년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3% 증가된 1천71억 원을 확보하고, 승용차, 버스, 화물차, 청소차 등 총 2,127대 수소자동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버스의 경우 119대 보급을 시작으로 가장 빠르게 대규모 수소시내버스 도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수소대중교통체계 진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시는 과거 시커먼 매연을 뿜어대던 경유버스가 LNG버스로 전환됐을 때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듯이, 수소시내버스로 전환이 본격화 될 경우 버스 정류장의 미세먼지 제거 등 도심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 차량 소음,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탁월해 대



중교통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소버스는 100% 저상버스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수소자동차 보급에 큰 걸림돌이었던 수소충전소가 내년에는 14개소로 확대된다.

시는 2030년까지 전 지역 20분내 접근 가능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민간 주유소, LPG충전소와 연계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추진해 왔다. 2019년 인천시 제1호 수소충전소인 'H인천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에는 현재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8개소가 완공됨에 따라 총 14개소*로 늘어

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화물차 차고지를 대상으로 환경부, 국토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해 기관협업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수소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수소에너지는 미래먹거리 분야로 세계 초일류도시 브랜드 가치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반드시 선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하며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은 물론 수소대중교통체계를 본격화함으로써 수소경제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GTX-A 2024년 개통, 출퇴근 부담완화 기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9일 경남 창원 현대로템(주) 공장에서 열린 GTX-A 출고식에 참석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열차 출고를 축하했다.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철도관계자 등 주요 인사 90여 명이 참석했다. GTX에 이르기까지 전동차 개발 역사 등 사업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주요 내빈과 기자단이 GTX 차량을 시승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GTX-A 노선은 서울 주요 지역 접근 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하는 핵심노선이며 수도권 통탄 해소와 장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4년 6월 적기 개통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GTX-A가 완벽하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2028년까지 무정차 통과하는 삼성역 공사가 단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은 파주 운정~화성 동탄까지 운행할 노선이다. 최고속도 180km/h로 대



심도를 운행하여 수도권 장거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TX 차량 내부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타고 내리는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지하철처럼 통시트 형태로 되어 있다.

고양시는 킨텍스, 대곡역에 이어, 2020년 12월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에 창릉역 신설이 결정되어 킨텍스, 대곡, 창릉 총 3개 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2024년 운정~서울,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울 삼성역은 영동대교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공사 지연으로 인해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시흥시, 인천광역시와 간담회 통해 "배곧대교 건설 필요성 공감" 상호 협력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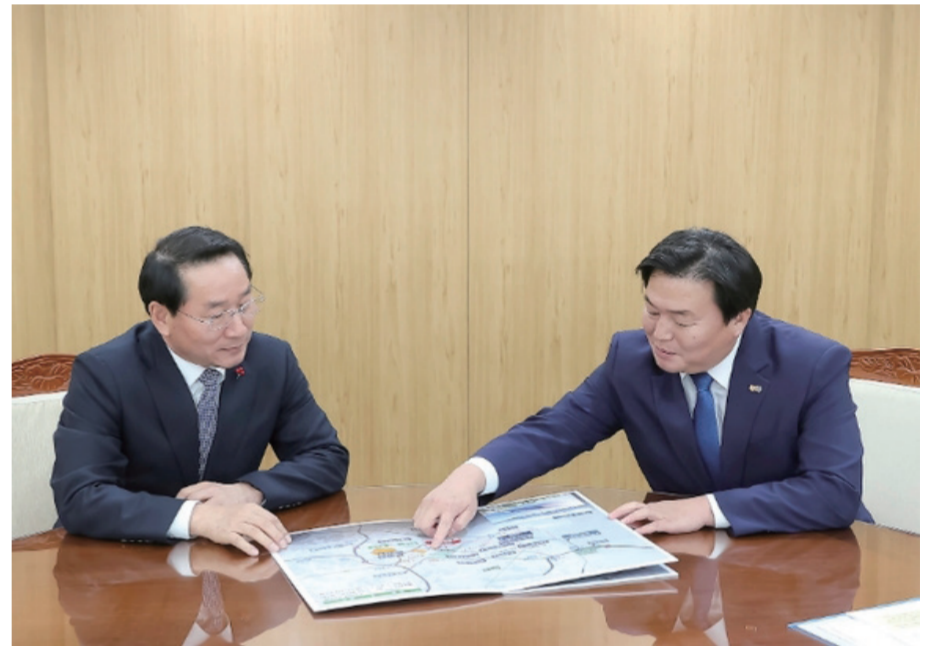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6일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협력과 (가칭)송도배곧대교 등 양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흥 배곧과 인천 송도를 연결하는 송도배곧대교는 민간자본 1천904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1.89km의 왕복 4차로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송도배곧대교는 양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두 경제자유구역 연결·통합함으로써 세계 초일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자리에서 임 시장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시흥시와 인천광역시는 소래산 및 송도·시흥곶골 등을 공유하며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송도배곧대교



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의 기반시설로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뜻을 같이 한 두 도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우용기자

오산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오산시는 시정 발전 및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총 10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여 시민 제감도와 과제 의 중요도·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최종 3건(최우수, 우수, 장려)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직원은 ▲최우수, 스마트교통안전과 이하림 주무관(오산시, 우리나라 대표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아) ▲우수, 평생교육과 이종현 주무관(예산은 낮추고! 삶의 질은 올리고! 오산시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장

려, 홍보담당관 안승민 주무관(유투브를 활용한 시정 정책 적극 홍보)이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스마트교통안전과 이하림 주무관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추진하여 오산시에 특화된 스마트시티 구축 방향 설정과 전략서비스 발굴하여 올해 오산시가 스마트 도시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기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생교육과 이종현 주무관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지역 출신 대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고심한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학관 설립보다는 에어비앤비 같이 공유하는 형태의 한국사 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전국 6곳, 쿼터 70명)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홍보담당관 안승민 주무관은 시민들에게 시의 주요 정책 및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 공식 유투브에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직접 오산시 '홍보맨'으로 유투브에 출연하는 등의 시정 홍보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장려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적극 행정 동기부여를 위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은 순위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다른 지자체와의 공유로 적극 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안산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안산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2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

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설 출입구나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응급장비 설치 후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 해야 하며 설치의무기관이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이성희 보건정책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무기자

봉화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재인증 획득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자격 유지

봉화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봉화군은 2017년 12월 최초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 12월 연장승인, 2022년 11월 30일로 연장승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6월 재인증 신청을 해 서류심사 및 군수 인터뷰 등의 현장 심사를 거쳐 2025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봉화군은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자녀출산 특별휴가, 가족 힐링캠프 등 가족친화제도 사용을 장려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제 2022-1471 호

가족친화인증서

기관명 : 경상북도 봉화군청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읍 봉화로 1111

유효기간 : 2022.12.1 ~ 2025.11.30

위 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예천군, 경상북도 에너지대상 대상 수상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대상 받아 상사업비 7천만 원 확보

예천군은 지난 19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22년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경상북도 에너지대상은 도내 23개 시·군, 기업, 민간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에너지 절약 실적 및 사업추진 ▲에너지 관련 정책 도입과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및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주택·건물·경로당 등 총 443개소에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며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 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경로당·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의 일환인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및 열 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재익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베트남에서 메타버스 수도 선포

- 이철우 도지사,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포럼서 강연
- 섬유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등 22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 현지 진출기업체 현장 방문, 시설견학 및 임직원 격려
- 자문위원 및 진출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장 등 간담회 가져

이철우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 대표단이 지난 16일 박닌성에 소재한 경북 진출기업인 크레신과 엠텍을 방문해 회사현황 청취 및 생산시설 견학, 기업체 임직원 격려, 식수행사 등의 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600여 명이 참석한 한베트남 경제포럼에서 <메타버스 수도 경상북도>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오전 방문한 크레신은 지역출신 대표이사가 설립, 6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3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기업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재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 데이터 케이블, 충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니, 삼성, 오디오테크니카, 스킨캐디, HP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

엠텍은 2013년 2월, 베트남 박닌성에 설립 이후, 14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4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전자의 밴드회사로 모바일폰의 내외장재 가공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둘러 본 이철우 도지사는

"멀리 이국땅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경영활동을 하시는 두 분의 대표님들에게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고, 더욱 성장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메타버스를 디지털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메타버스 수도 선언도 메타버스 분야에서 새로운 디지털 정책모델을 설계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경북의 미래 먹거리로 개척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포했다. 새로운 차원의 지역 주도 글로벌 메타버스 혁신특구를 만들어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테스트베드 구축, 특구 내 규제특례, 정주 여건 등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도 메타버스를 활용, 베트남과의 경제, 문화, 통상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지 바이어들과의 만남

을 통해 이화



SRC(경산, 섬유기계제조)는 현지 바이어(S사)와 224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삼성전자 및 LG전자 밴드업체내에 한국산 화장품 및 생활소비를 납품하는 업체와 세부상담을 추진해 입점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 저녁 자문위원, 진출기업, 유관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도내 이철우 도지사는 "현지 진출기업체 임직원을 유치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상품개발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베트남 일정을 마무리 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민선8기 공약 실천의 첫 걸음은 위대한 시민과 함께!

안동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안동시는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시는 지난 19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35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직접 주민이 참여해 공약실천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협업을 보장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만 18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RS 모집과 전화 면접을 거쳐 주민배심원 35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첫 회의는 ▲안동시장의 위촉장 수여, ▲'새로운 안동을 위한 비전

2030' 특강에 이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주민배심원 역량강화 교육, ▲분임 구성 및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촉된 주민배심원은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및 조정 적정여부를 심의한다.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시에 제시하며, 시는 권고안을 검토·반영하여 공약을 최종 확정 후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8기 새로운 안동을 건설하기 위한 공약사업에 주민배심원단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모두 이행해 안동을 활력 넘치는 성장도시, 함께 만드는 희망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우즈벡 순방 마치고 귀국...경주시 개최되는 'OWHC-아태 총회' 협조 당부

내년 9월 개최 '제4차 세계유산도시기구-아태 총회' 홍보 위해 4박 6일 일정 마치고 17일 귀국

'제4차 세계유산도시기구(OWHC)-아시아태평양 총회' 홍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제4차 OWHC-아태 총회는 내년 9월 경주에서 열린다.

'OWHC-아태 지역사무처'는 경주시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12개국 40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유일의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구다. OWHC 본부는 캐나다 퀘벡에 있다.

주낙영 시장은 4박 6일 간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기간,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차례로 방문하며 OWHC-아태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 순방에는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을 포함,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먼저 13일 오후(현지시간) 실크로드 대표 거점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찾은 주 시장 일행은 우마로프 파즐리드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앞서 2013년 8월 경주시-사마르칸트 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 이후 만 9년 만에 경주시의 공식 답방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10주년과 '경주시-사마르칸트 간 우호 도시 협정'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9월 경주에서 열

릴 OWHC-아태 총회에 우마로프 파즐리드 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이어 15일 오전 부하라 시청사로 자리를 옮긴 주 시장 일행은 라흐마토프 미르조 부시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 산업, 문화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또 경주에서 열릴 OWHC-아태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며, 부하라 시장단 일행을 아태 총회에 공식 초청했다. 이 밖에도 본격적인 실�크로드 학술·

교육·문화 교류를 위해 14일과 15일에 걸쳐 유네스코 중앙아시아 국제연구소(IICA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아프라시야 박물관, 실크로드 국제관광 문화유산대학, 부하라 국립대학교 등 4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거점 기관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순방 성과를 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범위를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 번영을 이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실�크로드를 통한 한민족 문화의 재조명하기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국제교류와 통상, 새로운 문화 브랜드의 창조 등을 통한 경상북도와 경주시, 아울러 대한민국의 융성을 기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윤타용기자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주거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대구자치경찰위·DB손해보험·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회공헌기금 1억 7천만원 활용, 범죄 피해자들의 주거안전을 위한 홍보안 서비스 3년간 무상 지원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 (월), DB손해보험,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주거안전 확보'를 위한 삼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DB손해보험은 사회공헌기금 1억 7천만원을 대구서부범죄피해자 지원 센터에 지정 기탁하고,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기금을 집행·관리하며 대구자치경찰 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사회약자 147가구에 홈-도어가드(CCTV)를 무상 설치한다.

또한 민간경비업체의 홈-보안 서비스를 3년간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홈 보안 서비스 주요 기능으로는 폐쇄형 카메라(CCTV)가 설치된 현관문 앞 실시간 영상 확인 및 배회 감지, 영상녹화, 출입내역 확인, 24시간 출동서비스 기능이 있어 스토킹 이외의 절도 등 범죄 예방과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현 DB손해보험 전략기획본부



장은 "지속적인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기봉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 하도록 운영하 고, 모범사업으로 틀을 갖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용숙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 보호이기 에 범죄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경북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

청 송 군 은 최 근 "2022년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에서 최우수 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과수산업육성시책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수분야 국·도비 예산 집행실적, 공모사업 선정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도 자율평가 결과 등 과수산업 육성시책 추진 노력, 지자체 관심도 등 5개 항목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해 평가했다.

청송군은 이번 평가의 9개 지표 중 특히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 및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도 자율평가 결과 등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송군의 과수분야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과 농업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 청송군 과수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의 청송사과는 10년 연속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농산물 직거래분야 '최우수상', 농가 실질소득 창출

- 2021년 농식품 수출실적 경북 1위...수출 정책분야 우수상 수상
- 온·오프라인 판매 104억원, 농식품 수출실적 1억6249만 달러 성과

영주시는 지난 19일 15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경북 농식품 우수시군 평가 시상식에서 농산물 직거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농식품 수출정책 분야에서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분야에서 △농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 △농특산물 판로확대 관련 특수시책 등을 평가하고, 농식품 수출정책 분야에서는 △수출액 △증감률 △수출정책 등을 대상으로 평가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군을 시상했다.

시는 농산물 직거래 분야에서 10월 기준 온라인 매출 약 47억 원, 오프라인 매출 약 57억 원으로 합계 104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또, 대도시 대형마트에 농산물 직매장인 'The 영주'를 설치하는 등 판매 실적과 판로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시는 2021년 기준 농식품 수출실적 1억6249만 달러를 기록해 경북도내 시·군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이와 더불어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및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노력을 인정받아 농식품 수출정책 분야에서 우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다. 송호준 영주시 부시장은 "코로나 19, 경기 침체 등으로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불

구하고 우수한 실적을 올려 농가 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가 실질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수출기업인 축제 「부산 무역의 날」 개최

세계 경기침체에도 수출탑 수상자 2012년 이후 역대 최대 달성!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부산 수출기업인 축제 '2022년 부산 무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시 수출은 최근 고물가·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로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149억 불 수출을 달성하며 건실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부산 기업인들이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신산업에 대한 도전, 수출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등에 각고의 노력을 펼쳤기 때문이며, 부산시도 기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부산 수출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수출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이남규 부산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해 수출 기업대표, 유

공자, 수출 관련기관 관계자 등 240여 명이 참석하며, 박형준 시장이 부산수출대상 등의 시장포상과 정부포상, 수출탑 등을 수여·전수했다.

이날 시상상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는 부산 수출기업인은 총 167명이다. ▲ 부산수출대상은 윤범식 (에이노플 대표) ▲ 부산수출 우수상은 김광표 (에이노플 대표, 김민) (에이노플 대표, 정태영 (에이노플 대표)가 받으며, 유영하 (에이노플 대표) 등 총 10명이 수출공로자로 시장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올 한해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수출에 힘쓴 37명의 무역인이 정부포상*을 받았고, 수출 5억 불을 달성한 현대글로벌서비스(주) 등 116개 사도 수출탑을 받았다. 특히, 올해 수출탑 수상 기업은 지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다. 부산 수출기업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부산

지역 수출이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산 기업인들의 끊임없는 전진심 덕분"이라며, "우리시도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수출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부산기업의 성장의 기회이자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나게 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기업인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도 당부했다.



송종진/기자

경북교육청, 학교 도서관 활성화 유공자 표창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헌신한 교원 16명, 일반인 11명 교육감 표창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월), 따뜻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헌신한 교원 및 일반인 27명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및 독서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교원 16명과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책나눔학부모자원봉사단 11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들 유공자는 지난 몇 년간 학교도서관의 개량이 원활하지 않았던 혼란한 상황에서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책나눔 학부모자원봉사자로서 감사패를 받은 한 학부모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서관에서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은 평범했던 일상의 또 다른 활력소가 되었으며, 내가 빌려준 책 한 권이 아이들의 미래에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2년 한 해 동안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32교 △RFID 시스템 구축 9교 △도서관 비품구입비 112교 △학급문고 도서관

입비 305교 △학교도서관 도서관구입비 305교 등 총 82억 원의 예산을 각급 학교에 지원해 학교도서관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김희수 유초등교육과장은 "2022년은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학교도서관이 학생들 품으로 돌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023년에도 학생들의 독서교육 지원 및 인문소양 능력 함양을 위해 학교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 서구청, 2022년 대구시 에너지절약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 서구청은 대구시에서 실시한 '2022년 에너지절약 업무 및 정책추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대구는 올해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에너지바우처 추진 등 총 9개 항목에 대한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평가했다. 서구는 올해 저소득가구 182세대,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LED 전등 총 1,129등을 무료 교체하여 기존 전기요금의 약 45%를 절감하고 저소득가구 약 5,700가구에 냉·난방비용 지원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동·하절기 전력피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2023년에는 저소득가구 132세대를 대상으로 LED전등을 무료교체하고,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택 및 건물 12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유가와 연료비 급등으로 에너지 사용 요금이 증가한 시기에, 구에서 앞장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정책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부산교육청, '도전! 수업 Start-Up!' 성과 공유회

수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교실수업 개선 프로젝트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21일 오후 4시, 연제구 아시안드시티에서 교사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 연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수업개선 프로젝트 '도전! 수업 Start-Up!' 운영성과공유회를 갖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일 년간의 프로젝트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학생주도 배움 중심 수업 내실화를 일반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초등학교 54개교 186명의 교사가 블렌디드 환경 활용 수업, 프로젝트 수업, 협력 수업, 자유주제 수업 등 다양한 영역에 도전하여 수업공개와 수업 나눔의 장을 펼쳤다.

각 팀은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저경력 교사 ▲좋은 수업 아이디어와 사례가 있는 선도 교사 ▲공동연구를 통해 협력적 수업 나눔을 경험하고 싶은 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함께 도전하고 싶은 영역을 선정해 수업 나눔을 실천했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는 학생주도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자발적·협력적인 수업 연구와 실천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내년에도 이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여 교사들이 협력하여 수업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이어·문항어촌마을 전진대회’해수부 장관 표창

전국 4개 마을 중, 남해군 2개 마을 선정 쾌거

남해군 어촌체험 마을인 이어마을과 문항마을이 지난 15일 거제 소노캠에서 열린 ‘제15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주관하는 ‘어촌마을 전진대회’는 어촌 정책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전국 단위 행사다.

올해 어촌관광 사업 등급 평가에서 체험·숙박·음식 3개 부문 모두 일등급을 받은 남해 이어마을이 ‘일등어촌상’에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각 부문(체험·숙박·음식)에서 최고성적을 받은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했는데, 문항마을은 체험부문 우수마을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전국에서 선정된 어촌 우수마을 4곳 중 남해에서 2개 마을이 배출됨으로써, 남해군이 명실상부한 어촌체험관광의 선두주자임을 입증했다. 장충남 군수는 “주민들께서 현장에

서 각고의 노력을 해온 덕분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민관이 함께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남해 어촌의 아름다움과 청정함을 지켜 나가자”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경북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성과보고회

2022년 사업성과보고 및 개선방안 토론회 실시

도내 25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71건 시설개선 완료

경북도는 지난 20일, 대구 인터파크 호텔에서 지역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관계자,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화학물질취급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과 시설개선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는 ▶2022년 화학물질 사업장 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 ▶진단 항목별 미비 현황분석 및 개선사례 소개 ▶사업 추진상 문제점 청취 및 개선방

안 토론 ▶내년도 사업계획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영세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51개소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과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비 6.25억원으로 2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행된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노후 저장시설,배관,펌프 교체, 옥외저장시설 누출방지턱, 방류벽, 누출감지기, CCTV 설치 등 총 71건의 시설개선을 완료해 화학사고 취약요소를 제거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화학 사고는 사전예방이 가장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화학사고 발생요인을 줄여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로맨틱 멜로디 크리스마스 콘서트 개최!!

영양군에서는 (재)영양축제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로맨틱 멜로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12월 20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군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 문화적 일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고, 선착순 300명이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공연으로 진행된다.

‘로맨틱 멜로디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는 코믹저글링, Jazz, 발라드 등의 차가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로맨틱한 공연으로 구성됐다.

출연 가수로는 독특한 음색과 탄탄한 라이브 실력을 갖춘 김필을 비롯해 싱어송라이터 윤탄탄, 재즈가수 양지벤드 등이 출연하여 다채로운 무대 구성으로 관객들의 흥과 재미를 더해 줄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군민들께서 잠시나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올해 영양군이 준비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을 사랑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다채로운 공연을 지속해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2022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표창

울진군이 경상북도에서 평가하는 ‘2022년 지역경제활성화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 우수한 시·군을 격려하고 지자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여건 및 실적에 맞는 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체 지원 우수정책 발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공공요금 물가 안전관리 추진 등에 중점 평가 방향을 설정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항목을 높이 평가하게 됐다.



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타지자체보다 우수한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송병복 울진군수는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

수로 지원, 울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의성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올해 코로나19, 러우전염 등 다양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처음 실시된 평가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협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등 6개 지표에 대한 2022년 한 해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최우수기관 24곳을 선정했다.

의성군은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외 5종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착한가격협소 24개소에 친환경물병, 방역물품 지급 등 인센티브(32백만원) 지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비 할인, 지역화폐를 활용한 직거래장터 행사 등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물가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물가안정시책추진으로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생활물

가안정화 시책을 통해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을 마치며

국제적으로 청정해역이라 알려진 경남 통영의 연안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굴 양식용 코팅사와 페그물, 로프, 통발 등 썩지도, 분해도 되지 않는 유령어구들과 각종 해양쓰레기로 인해 수중생물들이 살수 없는 황무지로 변화하고 있다.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고 바닷속의 먹거리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통영시와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그리고 통영시의 10여 개 어촌계는 2022년 한 해 동안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중 및 수변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총 35회, 456명이 참여한 활동으로 약5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이는 마을공동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특별한 교육 없이 수거활동을 통해 ‘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스스로 자각하여 어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향상하게 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어구 반납제 및 어구분실신고제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어민참여형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은

투입 비용 대비 수거량이 두 배로 많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고, 어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 제고와 참여소득으로 어민 생계에 도움이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협조해주시는 어민에게 감사사를 표하며, 경상남도과 통영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장은 해양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통영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영준/기자

김진열 군위군수, 군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 현안 논의

김진열 군위군수는 12월 16일 오후 3시 대구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여 군위를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정 주요현안을 보고했다.

기자회견을 방불게 할 이날 회동에는 박수현 군의회 의장, 박창석 도의원, 대구편입추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복 의원과 대구시 이종현 정책총괄단장, 김대영 행정국장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김진열 군수는 편입준비과정에서 행정공백과 주변불편최소화를 위해 대구시·경북도·군위군 공동협의체 운영과 2024년도 국·시·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광삼/기자



울릉군, 2023년도 본예산 역대최대 2,420억원 확정

울릉군이 19일 울릉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도 본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2,42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20억원(10%)이 늘어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5억원, 특별회계는 35억원이 편성됐다.

군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에 따른 경기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분야별로는 문화및관광분야 256억원 환경분야 209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243억원 교통·지식개발분야 355억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

가 408억원(16.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에 129억원(어울림문화센터, 스노우멜팅, 울릉살터건립, 치유숲 조성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장승벽, 구암, 도동2리까가등)에 106억원, 어촌뉴딜300사업에 73억원(학포,통구미), △도동~저동관광지 연계순환도로개설에 55억원, 권역단위거점개발(평리마을)에 9억원,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8억원 등이 편성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2023년도 예산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 불편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

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내년은 민선8기 주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새물결으로의 도약을 위해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중/기자



전라북도, 콩·밀 대표 주산지로 전국 최고 우수생산단지 선정!!

'22년 농식품부 국산 콩·밀 생산단지 각분야 대상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22년 농식품부 우수 국산 콩·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 응모한 전북도 생산단지 6개소(콩3, 밀3)가 대상 2개소, 우수상 2개소, 장려상 2개소에 선정됐다. 이번 선발대회는 논콩 생산단지 및 지역간 수량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해 체계적 성장 유인책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공모는 '21년부터 시행된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정사업과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성과 확산을 통해 전국 밀 생산단지의 전문화,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 제고 유도를 위해 금년부터 시행되는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정의 2개 분야에서 추진됐다.

이에 전북도는 우수 콩 생산단지에 대상(김제 햇불영농법인)과 우수상(익산 뿌리깊은영농법인, 정음 녹두한우영농법인), 우수 밀 생산단지에 대상(부안 부안우리밀영농)과 장려상(전주 전주우리밀영농, 정음 샘골농협)을 휩쓸었다.

특히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에 선정된 김제 햇불영농조합법인은 김제 석산한우영농조합법인(21)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선정이다. 평가항목 중에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수확량 계측(100점 중 50점)에서 470kg/10a를 수확해 선정 단지 9개 평균 수확량(391kg)대비 월등히 많은 수확량을 보인 게 전북도의 콩 주산지 자존심을 확실히 세우고 이번 대회에 대상 선정을 견인했다.

전라북도는 콩·밀 생산단지 육성 정책을 통해 재배면적이 전국 약 41%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주산지로 성장했으며, 고품질 국산 콩·밀 육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논콩 재배면적은 640ha로 전국 4,422ha 대비 14.5%에 불과했으나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시행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콩 육성 정책 등으로 2021년에는 4,910ha까지 확대하여 전국 10,658ha 대비 46.1%를 차지했다.

2023년부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논콩 전문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47개소에 14억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 시설·장비 16개소에 68억원, 콩 종합처리장 신축 등 2개소에 33억원을 지원 계획이다.

국산 밀 재배는 '19년 863ha, 전국 3,736ha 대비 23.1%였으나 정부의



국산 밀 산업 육성 정책으로 2022년에는 2,852ha로 전국 8,258ha 대비 34.5%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도는 앞으로 고품질 우리밀 생산을 위한 전문 생산단지를 30개소에 약 3.5천ha를 조성·운영하며 교육·컨설팅 30개소 10억원, 시설·장비 4개소 11억원, 건조·저장시설 2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논콩 재배 유도를 위해 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2022년 진안군정 결산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민선8기 진안군 비전이다. 진안군은 2022년 진안 성공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새롭게 변화하는 계획도시 △골고루 잘사는 경제육성 △누구나 누리는 복지생활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가고싶고 찾고싶은 휴양관광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여섯 가지 군정지표를 설정하고 쉽이 달리는 진안군의 울 한해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골고루 잘사는 경제육성 집중 지역권 친환경 산림교원 조성사업 등 대통령 공약사업에 2건 4.627억 원을 반영시켰다. 5개분야 16개 핵심과제에 2,162억원을 투자하는 민선8기 농업분야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140억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하고 인구감소 민관 공동 대응 실천협약,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확대 등 총력을 쏟았다.

용담댐 및 댐 주변지역 가치증진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하는 등 용담댐 주변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기본계획 및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 진안 홍삼한산사업이 한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또한, 토마토 선별장 증축(330㎡) 및 선별기(1식)설치, TV홍쇼방 지원(4개소), 박람회(4회) 등 판로개척에 힘썼다. 진안조금법인은 2차에 걸쳐 진안사과 8톤을 베트남에 수출했다. 진안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성장과 진안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기반을 강화했다.

▲누구나 누리는 복지생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를 준공했다. 진안군 가족센터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진안군 의료원-전북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협약으로 의료인력을 충전했다.

제5기 진안군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주민중심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체계를 마련했고,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10개소), 친절업소 포상(4개소, 각 5백만원), 식품제조업소 HACCP인증 지원(42개소)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운영 활성화를 지원했다. 인공지능(AI)빠방 돌봄인형 통합서비스 제공(100명), 제4호 치매안심 마을 운영(진안읍 노계3동) 한의치매 예방관리 신규사업을 추진(협약한의원 4개소)했다.

▲꿈을 실현하는 인재양성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육지원사업 추진(22개 사업)과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등을 확대했으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교육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천년배움 1인 1자격증 취득지원사업 등 늘 배움을 누리는 평생교육 환경 조성에 힘썼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경영인단 컨설팅과 젊은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미래 농업인 책임형 청년농업인 인재를 양성했다.

▲가고싶고 찾고싶은 휴양관광 체험·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산림치유 휴양관광 기반마련,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화 개발사업 등 가고싶

고 찾고싶은 휴양관광 기반을 구축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진안고원형 치유관광 광 기반을 마련했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신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임진왜란 웅치전적 사적 지정과 진안 홍삼축제 성공 개최 등 문화·축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수차례 개최해 15억여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소통행정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하여 민선8기 공약으로 5개분야, 59개 사업을 확정했고 다양한 방식의 소통행정으로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구현했다.

연초방문 및 이장·주민자치협의회 운영과 군 단위 주민자치회 및 직능·사회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군정홍보로 주민 알권리를 충족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관광지·농특산물·행정서비스 관련 콘텐츠(1,556회)를 제공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위상을 강화했다.

소셜아이어워드 유튜브부문 대상 등 총 40건의 수상과 함께출산을 전국 3위(1.56명) 달성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의 3대 원칙을 정립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했다.

"2022년은 군민과 함께 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킨 한 해였습니다." 전진성 진안군수는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을 변화의 물결을 일으킨 의미 있는 1년으로 평가했다. 전 군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킬 큰 선택이 있었던 올해,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민선8기 비전으로 정하고 군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군정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2,627억원 규모의 지역권 친환경 산림교원 조성사업, 2,000억원 규모의 지역권 산악관광 특구 조성사업을 제20대 대통령 공약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진왜란 웅치전적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과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진안 홍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는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로 평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성 군수는 "진안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일이 흔들리거나 멈춰서는 안된다"며 "새해에도 군민만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 군민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폭설 불편에 무거운 책임감, 재발 방지하라"

우범기 전주시장이 최근 폭설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시민을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연 간부회의 자리에서 지난 17일 폭설과 관련, "시민들이 겪은 큰 불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 문제만큼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했어야 했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의 점검을 주문했다.

우 시장은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눈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는데 만전을 기하고, 향후 추가 폭설시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지난 17일 폭설 때 간선 도로 제설부터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주시내 전반에 걸쳐 큰 교통혼잡이 발생했다"면서 "이제라도 제설대책의 허점을 찾아서 제대로 고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간선·지선도로를 찾아 제설작업을

마무리해달라"면서 "동별로 제설 취약지역을 파악, 제설작업을 즉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폭설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를 비롯한 전반적인 재난안전 시스템과 메뉴얼 점검도 주문했다.

우 시장은 "이번 폭설 때 곳곳에서 나온 위기관리 허점을 찾아달라"면서 "단계별 위기 상황에 대한 시청 공무원의 비상 근무 체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위기 상황 발생시 컨트롤 타워 문제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폭설 대응 과정에서 나온 문제를 포함해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7일과 같은 시민의 불편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메뉴얼을 다시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7일 전주시지역에는 8.5cm의 많은 눈이 내리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승일기자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단에 코웰패션(주) 2,200억 원 투자 유치

19일 완주군서 투자협약식 개최, 물류용지 14만5천㎡ 부지 투자에 서명

글로벌 종합 패션기업이자 상장업체인 코웰패션(주)이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물류용지 14만5,800㎡(4만4,109평) 부지에 2,2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런 규모는 쿠팡이 같은 산단에 계획했다가 무산된 10만㎡(3만평)를 뛰어넘는 것이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임종민 코웰패션(주) 대표, 최충식 완주테크노밸리(주) 대표이사는 19일 오후 군청에서 '코웰패션(주)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코웰패션(주)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500명의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완주군과 완주테크노밸리(주)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유 군수는 이날 "제조와 유통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우량기업이 완주군을 도약의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완주군이 '국내 물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만큼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웰패션(주)의 임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친(親) 기업 분위기와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구축돼 있는 지리적 이점 등 여러 점을 고려해 완주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며 "지역발전을 함께하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웰패션(주)의 이날 투자협약 체결로 테크노밸리 제2산단의 분양률은 기존의 계약완료(34.9%)와 투자

협약(15.8%)을 포함해 50.7%로 상승했다. 계약 직전 단계인 부지 면적(17만2,900㎡)까지 포함하면 분양률은 70%에 육박하게 된다.

현재 계약을 눈앞에 두거나 협의 중인 기업 중에는 물류업체도 포함하고 있어 코웰패션(주) 투자 유치와 함께 완주군의 물류산업 육성에 청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코웰패션(주)의 완주군 투자자 대규모인 데다 국내 물류업계에서 CJ대한통운과 쌍벽을 이루고 있는 로젠택배를 인수한 상장업체의 투자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민선 8기 유희태 군정은 1천만 관광객 유치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등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통해 완주군을 '국내 물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뜻을 피력한 바 있어, 코웰패션(주) 투자협약에 거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정식 캐미칼 투자(3만3,200㎡), 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주) 완주공장 준공,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착공 등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수소와 물류 관련 기업들과의 구체적인 투자협상도 최대한 빨리 계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이날 코웰패션(주)과의 투자협약에 앞서 "쿠팡과의 협약도 존중하지만 다른 기업의 분양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쿠팡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쿠팡 측과 최종 의사를 타진한 후 기존의 투자협약 해지를 지난 12일 전달한 바 있다.

김광수기자

익산시, 2년 연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복 '최우수'

익산시가 2년 연속 '202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평가' 전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수주와 하도급 현황, 건설자재, 현장방문 활동 실적, 우수사례 등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시는 지역업체·자재 및 기계장비 우선 사용, 인력 우선 채용과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건설사 공사 수주 확대를 위해 100억원 미만 사업은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계획 단계에 공구 또는 업종 분할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지역 제한이 어려운 경우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까지 끌어올렸다.

건설업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 실태조사도 확대했다. 8천만원 이상 전문 및 종합공사 수주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을 확대해 폐이퍼컴퍼니 회사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해 우수 업체에 수주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밖에도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장 책무 강화,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지역업체 하도급, 인력, 장비, 자재 등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지역건설업체가 향후 우수한 지역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해남군, 43개 마을에 문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 활력추진 지원사업이 주민 주도 마을 문화예술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올해 공모선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활력추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남, 마을에 文화를 피우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마을주민 999명과 102명의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마을 문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문화예술로 구성해 우리 마을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특징이 있다.

마을의 이야기와 설화를 담은 연극, 영화를 제작하고 동화책 만들기, 마을 시집, 마을 역사책 등 정성들인 마을 책자를 만든 마을도 있다. 뉴트로 패션쇼를 개최하는가 하면 마을 합창단과 어르신 밴드를 결성하고, 주민들의 얼굴을 담은 테라코타 부조물, 삶의 이야기를 옮겨 놓은 벽화로 마을에 활력을 더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낸 하나하나의 작품들은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해남만이 가진 문화예술 자원으로 탄생했다.

군은 '우리마을 文지기 양성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 64명을 마을문화 기

획자로 양성하는 한편 1천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문화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실시했다.

마을문화사업은 지난 6개월여의 성과를 모아 12월 한달동안 '우리마을 文 페스타'를 개최하고 있다. 해남문화예술회관, 면사무소 광장, 마을회관 등 지역별로 거점공간에서 14개 읍면의 페스타가 열리고 있다. 군은 12월 말까지 읍면 페스타에 이어 43개 마을이 다함께 참여하는 해남군 文 페스타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농사 짓고, 바닷일만 하던 손으로 난생 처음 문화예술 기획자가 되고, 실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은 물론 우리마을에 문화예술을 꽃 피운다는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리마을 문화 예술 만들기라는 의미있는 작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마을문화 기획자, 예술가들에게 감사드리며, 전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문화예술의 새로운 모델이 된 것 만큼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행복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광남/기자



목포시, 국비 확보 막바지 인간힘 쏟아 특별교부세 확보

목포시가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정기적인 특별교부세 배분이 끝났지만 시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끝까지 힘써 ▲목포만다비체육센터 건립 20억원 ▲해안로배수펌프장 노후 펌프교체사업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반영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1월2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조수진 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국비 확보에 온 힘을 쏟아왔다.

만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 공간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시설이다. 시로서는 체육인프라를 확충해 내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안로 배수펌프장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수중펌프의 교체가 시급한 상태였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교체가 여의치 않았다. 이번 펌프교체로 인해 집중호우 및 만조 시 발생해온 만호·동명동 일대의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청했지만 미반영된 '목포시 다목적 실내 트레이닝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기로 해 시의 2023년 국고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 시장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만호·동명동 일대의 침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각종 재난시설 확충 및 편의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영산강느리지 명품관광지로 육성"

나주시·무안군 관광자원 개발사업 적극 지원 약속



목포시, 주말 휴일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총력

18일 오전 6시 전직원 비상소집해 횡단보도·버스승강장 등 제설

목포시가 주말 휴일을 반납하고 제설작업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목포에는 17~18 새벽까지 12cm가 넘는 눈이 내려 시는 주말 동안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교통불편 최소화에 인간힘을 쏟고 있다.

목포는 지난 17일부터 내린 소낙눈에 영하 4도 이하의 강한 한파까지 겹치면서 도로에 쌓인 눈이 쉽게 녹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17일 20시부터 제설차량 6대를 가동해 주요 간선도로와 경사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는 소형제설기 5대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

를 위해 18일 오전 6시부터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담당 구역별로 배치해 갓길,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의 눈을 치우고 있다.

시는 적설량이 1~5c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제설단을 통해 대응하고, 대설주의보·경보 및 5cm 이상 등 비상시에는 전직원을 투입해 인도,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을 인력으로 제설한다.

시 관계자는 "폭설과 한파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와 보일러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 조치를 당부드린다. 또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나주 동강면과 무안 몽탄면에 있는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 전망대를 방문, 나주시와 무안군의 관광자원 개발 현황을 살피고, 명품관광지로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김산 무안군수, 나주의 이재태, 최명수 전남도의원, 무안의 나광국, 정길수 전남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환 나주시의원, 이호성 무안군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됐다. 한반도 형상과 매우 유사해 매년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2019년 '영산강 느리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

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컵타와 산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2021년 '영산강 관광 경관개선 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36억 원을 들여 조망쉼터, 탐방로, 쏫단지, 한반도 지형 상세복원 등 사업을 할 계획이다.

두 사업이 준공되는 2025년부터는 한반도 지형 느리지 관광지가 명실공히 손색이 없는 지역의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지형 느리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친환경적으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나주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 청신호... 시민 염원 이뤄낸다

윤병태 시장,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와 간담회 가져

전라남도 나주시의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을 12만 나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관·군 간 논의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시청사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달 이뤄진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공식 요청했다.

윤병태 시장은 이 자리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2개 방안을 군에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산 정상 공군부대 완전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를 금성산 등산로 개설, 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산 정상 공군부대가 그대

로 주둔할 경우 부대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공간, 주변 부지를 나주시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는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시장은 제안 설명과 더불어 산 정상부 지뢰 제거 현황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신무기체계 도입 관련, 타 지자체 개방 사례 및 관·군 간 협력 사항 등에 대한 관·군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윤 시장은 "나주시민들에게 금성산은 단순 산이 아닌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호신,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라며 "과거 안보 논리에 국한하기 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과의 상생을 가치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관계자는 "나주시민들의 산 정상 개방에 대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군에서도 접점을 찾아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은 안보와 더불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 정상 상시개방과 관련된 나주시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협의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식 제안한 금성산 정상 상시 개방 추진 안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금성산은 해발 451M, 4개의 봉우리(노적봉·오도봉·다복봉·정녕봉)로 이뤄져있는 나주의 진산(鎭山)이다. 진산은 도읍지나 큰 고을 뒤에 있는 큰 산을 뜻한다.

고려시대부터 국가에서 산신제를 지냈던 영산(靈山)으로서 매년 나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금성산에 모여들어 한해의 풍년과 태평함을 기원하기도 했다.

오늘 날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생태 물놀이장, 생태 숲, 나주 숲체원 등 유희시설이 위치해 있어 등산뿐만 아니라 체험·여가형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매년 1월 1일에는 산 정상에서 나주시민들이 새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갖고 있다.

김영만/기자

장흥소방서, 신속한 대피 위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홍보

장흥소방서는 관내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신속히 착용 및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탈출용 가운'을 비치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는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 옷을 챙기다 연기 질식 및 화상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비상 탈출용 가운 비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또한 비상용 목욕가운은 사우나, 목욕탕 화재 시 대피자들이 몸을 신속하게 가리고 대피할 수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17년도 29명의 목숨을 빼앗아

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인천시 파라다이스 호텔 여성사우나에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291명이 긴급 대피한 사건을 계기로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항식 장흥소방서장은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은 밀폐되어 있어 화재에 극히 취약하여 비상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며,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여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의 비치에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재원/기자



'충남 썬(SSEn)농 위원회' 민선 8기 농정이끈다

지속성(Sustainable), 스마트(Smart), 가능성(Enable) 등 농업의 산업화 실현 의지 담아

충남도는 민선 8기 도정 비전인 힘썬충남과 농업의 산업화 실현 의지를 담은 '충남 썬(SSEn)농 위원회'가 내년 3월 정식으로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민관 농정협의체인 위원회의 정식 출범에 앞서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홍 지사를 비롯해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충남 농정 방향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 명칭은 지속성(Sustainable), 스마트(Smart), 가능성(Enable)의 첫 자음을 결합했으며, 농업·농촌 발전 촉진 및 농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농업인단체, 농업 유관기관 및 연구·학계,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 등을 포함해 35명으로 구성했으며, 김 지사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진두지휘한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도는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청년농 육성과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모성 보조사업도 농어민 수당으로 통합하고, 도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의 비중을 현재 14.5%에서 16%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민선 7기 농정위원회와는 달리, 제가 위원장으로 직접 나서서 여러분과 함께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고민하겠다"며 "이러한 충남의 노력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더해지면 혁신을 가속화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2월 관련 조례개정과 함께 정식으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민선 8기 농업·농촌 분야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과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며, 민선 8기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7개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7개 분과는 △청년 △농업인력 △임산업 △축산업 △유통소비 △농업

기술 △농촌공간이며, 민선 8기 도정 과제 실현을 위해 청년, 농업인력, 농촌공간분과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김 지사는 "농촌문제 해결은 항상 제 마음 속 첫 번째 과제"라며 "썬농 위원회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영월군, '별이 빛나는 은하수길' 야간경관 명소로 새단장

영월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야간경관 명소를 조성 완료했다.

영월읍 중앙로 시가지 부분이 밤에 어두워 아쉬웠으나 야간 경관조명 설치로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게 됐다.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 700m 구간에 은하수 야간조명 및 소나무 경관트리 및 인근 소공원에 원형 야간조명을 조성해 관광도시인 지역 이미지를 높였다.

연말연시를 기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이색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 및 방문객 만족도 증대 등 야간명소로 재탄생하게 됐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읍 중앙로 일원에 '별이 빛나는 은하수길'을 조성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색적인 연말연시 분위기를 향유하며, 지역의 대표적인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중소기업의 어려움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

강원도는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기업의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도지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간다.

'22년 12월 20일 원주 기업도시 내 누가의리기를 방문하여 공장시설 등을 둘러본 후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가진다.

이날 간담회에 도내 소재 중소기업 15개 업체와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청, 경제단 및 중소기업 등이 대거 참석한다.

강원도지사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누가의리기'의 공장시설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시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등의 시간을 가진

후 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은행의 경제동향 및 전망 보고에 이어, 민생경제 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중소기업 성장 및 수출 지원 등 강원도의 주요업무를 보고한다.

이어서 도지사 주재로 의로기기제조업, 화장품제조업 등 총 15개 기업 대표와 도내 금융, 수출분야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현장의견 청취 등을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가 개최되는 누가의리기는 도내 대표 의로기기 업체로 '02년도 법인설립 후 '06. 5월 원주 동화첨단 의로기기산업단지로 이전했고, 11. 7월 기업도시로 확장 이전했다. '22년 강원 스타기업 및 글로벌 IP스타기업

에 선정됐고,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의로기기 부문 6년 연속 수상을 한 기업이다.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며, 2개 국가의 전쟁으로 현재 수출실적이 감소한 기업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금융·외환시장 및 민생·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향후 강원도의 정책수요와 현재 우려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원주권을 시작으로 다음 강릉권, 춘천권 등 권역별 개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진천군, 1인당 GRDP 9,039만원 11년 연속 도내 1위

GRDP 규모 7조 9362억원 도내 3위, 증가액 3222억원으로 도내 최고

진천군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을 11년 연속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하면서 경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GRDP(지역내총생산)란 지역에서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1년간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 부가가치의 합으로 지역별 경제활성화와 부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충청북도가 지난 11월 30일 공표한 2020년 기준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 결과 진천군의 1인당 GRDP는 2019년보다 78만원 증가한 9039만원으로 도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2위 자치단체의 8074만원보다 965만원(12%)이, 도내 평균인 4267만원보다는 무려 4772만원(112%)이 많은 수치다.

총 GRDP를 인구수로 나눠 정해지는 1인당 GRDP의 특성상 인구 감소에 따라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진천군에서 2020년 8만 7천 800명으로 늘어 3.3%라는 도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전국 82개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해 타 자치단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특히 진천군 GRDP 성장율은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0.6%, 충청북도가 -1.5% 성장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2020년 기준 2.1%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멈추지 않는 성장세를 증명하고 있다.

군의 지역내총생산 총 규모는 7조 9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명목가격으로는 3222억 원이라는 도내 최고 증가를 보였다.

도내 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했다. 또한 도내 2위권 자치단체와의 격차를 2018년 7707억 원에서 2020년 3479억원으로 55% 이상 줄이면서 2위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군의 인구와 면적이 충북 전체의 5.4%(8.78만명), 5.5%(407.3km)에 불과한데 비해 GRDP 점유율은 11.4%를 기록해 군세 대비 경제 규모는 2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진천군은 GRDP 고품행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지역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고용증대,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한 투자유치를 통해 한화솔루션, CJ제일제당,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대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시켰고 7년 연속 1조원 이상,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0조 8986억 원 투자유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생산력이 뛰어난 우량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전략이 주요하면서 2020년 기준 사업체 수 10,950개, 1개 사업체당 연간 생산액은 7억 2천만 원으로 도내 평균 3억 6천만 원의 2배를 기록 중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진천군이 대부분의 경제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진천상공회의소와 진천군기업인협회의 끊임없는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 덕분"이라며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으로 수립해 추진 분야에 실행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천안시 아동참여기구, 아동 의견 담은 정책제안서 제출

제3기 아동참여기구, 최종 정책제안 발표 및 정책제안서 전달식 개최

천안시는 지난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의 의견을 실현하기 위한 '천안시 아동참여기구 최종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동참여기구 활동 아동 40명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 이날 전달식은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한 해 동안 활동한 실적을 보고하고 최종 선정된 정책제안서를 천안시에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전달식은 2022년 활동 동영상을 시청 후 각 분과의 대표 아동 12명이 제안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초·중·고등학생 38명으로 구성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워크숍 활동을 진행해왔다. 아동참여위원회는 6가지 분과별로 ▲작은사회, 가정의 소통-관계 개선이 필요해 ▲청소년 정책, 아동의 의견도 함께! ▲고, 심하다(go! 심리상담서비스)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환경조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실질적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문제를 함께 해결해요! 를 최종 제안 정책으로 선정하고 발표했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38명의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아동권리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조사해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 점등 시간을 늘려주세요! ▲놀이터 내 노후된 놀이기구를 교체해주세요! ▲불량식품의 정확한 성분 표기를 의무화해주세요! ▲담배꽂이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해주세요! ▲학원 이용 시간을 연령별로 제한해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주차 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6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박상돈 시장은 각 제안에 대해 의견을 환류하고, 참여기구별 대표와 제안서에 약속 서명을 교환했다.

지난 5월 12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천안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원칙에 맞추어 2020년부터 아동참여기구인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구성해 아동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권리 주체이자 미래 주역인 아동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 천안"으로서 아동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청주시, (주)LG에너지솔루션과 투자 협약 체결

충 4조원 투자, 오창 제2산단 내 이차전지 시험 및 양산시설 구축

청주시는 19일 충청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주)LG에너지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오창제2산업단지 내 (주)LG에너지솔루션 오창 1공장과 2공장에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것이며, 투자규모는 총 4조 원

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방수 (주)LG에너지솔루션 사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으며, 인사말씀과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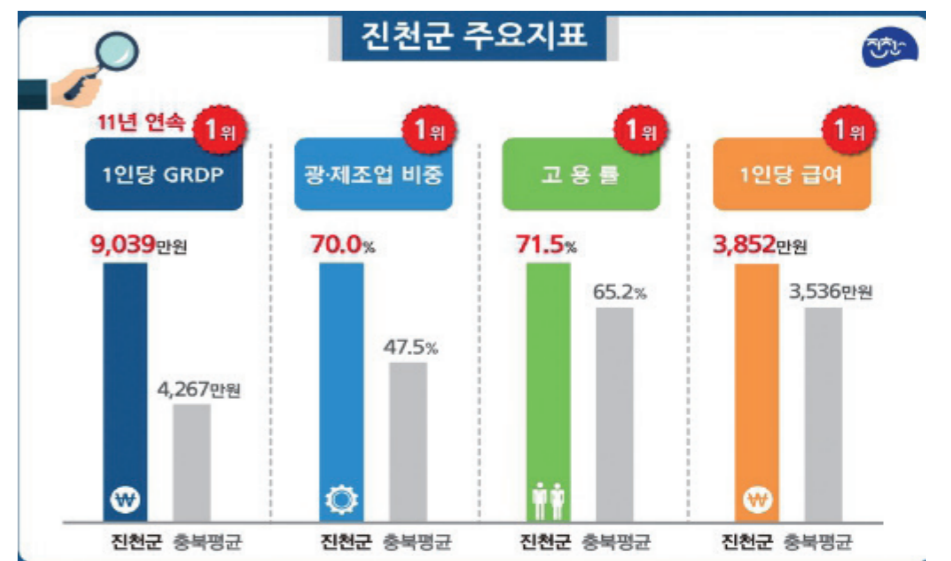
청주 오창은 지난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분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돼 공동 연구·개발 기반 시설 확충,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 이차

전지 시장의 허브다. 또한 반도체 약재 속에서도 청주의 무역특자를 견인하고 있는 생산과 수출의 핵심 거점이며,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불린다.

이번 (주)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오창공장 투자는 인센티브 지원과 투자에로 사할 해결, 이차전지 산업 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등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최근 (주)LG에너지솔루션은 독보적인 매출성과 스마트팩토리 기반의 차별화된 생산역량 확보를 통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청주 오창이 (주)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의 세계적 거점으로 더욱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 규제완화 등 글로벌 투자정책 적극 추진해야”

19일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세 번째 시간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9일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도민들도 현장에서 강의들을 들을 수 있도록 특강 장소를 경기도청 대강당으로 옮겼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강연자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산업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이창한 부회장은 반도체의 기본개념과 산업역사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국내외 산업 정책 동향과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산업은 미래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각국에서 경제와 안보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설계는 미국, 생산은 대만·한국,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등 반도체산업 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가별 역할이 분업화돼 세계적인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로서 새로운 혁신의 진원지로 진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수도권 특혜 등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추진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라 생각하고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현장 질의응답과 유튜브,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 참가자의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메모리반도체를 넘어서 시스

템반도체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성공한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만의 강점은 모든 시스템반도체를 전부 생산해낼 수 있는 고도로 다양화된 생산 탄력성을 갖추면서도 외국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능력이다. 지능형자동차, 인공지능(AI)로봇 같은 미래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 반도체를 만들어서 글로벌 협력이 가능하게 터를 닦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가 한국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 부회장은 “우리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은 대학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기존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만족한 내용과 아쉬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좋은 점은 전반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자꾸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아쉬운 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다. 도장 찍는데 힘들다, 설득하는 데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많다”면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팅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가 지원정책을 할 때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켜서 글로벌 시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스로 시장 수요를 가지고 뛰어난 기술을 갖도록 노력하고 직원들도 기업과 같이 가겠다는 공동체적인 마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총 7번의 경바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20일에는 이승규 한국바이오헬스 부회장이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충북·경북지사, ‘중부내륙지원특별법’제정 한 뜻

김영환·이철우 지사, 베트남 출장 중 상호 발전방안 논의

김영환 충북지사가 해외 출장 중에 도 가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 충북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출장 중인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나 충북과 경북의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두 지역이 역사·문화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충북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함께 발맞춰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백두대간으로 인접한 충북과 경북이 교통·물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문경~김천 중부내륙철도 복선화 및 미스링구간(청주~보은~김천) 연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 AI농업을 확대 발전시켜 상주, 보은, 옥천, 영동 등을 포함한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판매·유통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외에도, 양 도지사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상호 방문하여 직원 특강 등 대면적 스킨십을 강화하고 향후 인적교

류 등을 통해 상호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충청북도 대표단은 14~18일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 중이며, 타이

빈성과 우호교류, 희도류 공급망 구축 협력, 한-베 경제협력포럼 참석, 농식품·화장품 등 도내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등을 위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경산시, 신소재산업의 성공열쇠 ‘탄소복합설계해석기술지원센터’ 준공

미래 융복합 신소재 산업 육성 및 지역주력산업 성장동력 확보

경산시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원장대행 문지훈)은 16일 진량읍 공단11로 107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에 현장에서 여러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경산시는 철곡-경산-영천-경주-포항을 잇는 자동차부품산업 벨리의 중심지로서 2018년도 산업부 지역거점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5년간에 걸쳐 ‘탄소형성부품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설계해석 기술거점이 될 ‘탄소복합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이날 준공하게 됐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받은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산시이며, 주관기관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다. 5년간 총사업비 241.6억 원(국비 49.8, 지방비 189.4, 민자 2.4)을 투입하여 센터건립 및 장비도입, 기술지원을 수행했다.

본 시설은 경산4일반산업단지에 부지 3,966㎡, 연면적 2,509.96㎡, 지상 3층의 연구동, 1층의 생산동 2개동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탄소복합해설계해석 지원 소프트웨어 11종, 물성분석 및 시생산 지원 하드웨어

9종의 장비를 시설에 구축하여 상용화 설계해석지원, 금형개발 기술지원 등 탄소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한 종합지원을 하게 된다.

자율주행·전기자동차의 등장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초경량·고강도 소재가 주목받으면서 탄소복합재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탄소복합 소재 부품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설계해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설계해석기술은 기술개발 과정에서 미리 성능을 예측하고 품질을 개선시키는 시뮬레이션 기술로 개발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설

계·해석 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관련 기술의 축적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탄소복합소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할 미래 신소재 산업분야로써, 가장 핵심적인 설계해석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은 경산시와 지역의 많은 관련 기업이 열망해 온바, 본 센터를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래먹거리인 신소재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현/기자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기업 중 83.1% 청년 참여자 채용 계획...기업 96.3% 만족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총 186개 기업이 참여

“현재 스펙으로는 일할 기회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경험이 쌓이고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 온라인콘텐츠 분야 참여자

“내가 만약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 있었을까.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역량을 길러야할지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다.” - 제로웨이스트 분야 참여자

“회사에 사업 담당자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내 회사생활에 대해 누군가가 계속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됐다.” - 소셜벤처 분야 참여자

서울시가 유망 신성장 산업에 특화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마치면서, 12월 16일부터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미래 청년 일자리’는 콘텐츠 산업, 제로웨이스트 같이 향후 일자리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매칭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3개 분야(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를 선정해 186개 기업에 청년 구직자 555



명을 매칭하여 일자리와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했다.

올해 ‘미래 청년 일자리’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 완화하고,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청년이 원하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청년인재를 매칭하기 위해 중앙 공공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후속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선발 시 고용승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점 선발했으며, 참여자 서류면접 선발 과정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매칭률을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고용승계 계획 조사를 진행

했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경험 만족 등 82.1%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은 능력 있는 청년 참여자 매칭을 통해 회사 실무 업무에 도움이 컸다며 전반적 만족도가 96.3%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이후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업의 83.1%가 본 사업 참여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정규직(52.9%), 비정규직(16.2%), 인턴십연장(14.0%)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승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참여자의 진로계획 및 참여기업의 사정 등으로 인해 고용승계로 이어지지 않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소서 작성법 및 면접 준비 특강 등 각 분야별로 후속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사업을 통해서 일경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서울시는 후속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오는 12월 16일부터 분야별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성과공유회는 본 사업을 통해 일경험과 함께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각 분야별로 모여 지난 시간을 회고하고 사업 참여 이후의 진로계획을 함께 모색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12월 16일에 진행되는 소셜벤처 분야 성과공유회는 성수동 일대 소셜벤처 매장 투어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소셜벤처 생태계를 직접 보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제로웨이스트 분야는 워크숍 및 네트워킹을 진행하여 제로웨이스트 일경험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콘텐츠는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와 특색있는 상들을 선정하여 함께 공유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래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를 특화하여 청년들의 구직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스매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내년에도 양질의 기업 발굴과 청년 인재를 연결을 강화하여 청년과 기업 모두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고성군, 어촌개발을 위한 국·도비 확보 총력

정점식 국회의원에 사업설명

고성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3년 어촌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2개소 총사업비 99억 4,800만 원 규모를 신청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으로, 5년간 300개소에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 생활과 환경을 개선하고, 어촌 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어촌의 새로운 변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고성군이 이번 신청한 사업대상지는 하일면 가룡·하중촌항과 동해면 우두포항이다.

이성근 군수는 12월 16일 고성군을 방문한 정점식 국회의원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이번 공모사업을 설명하고,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 부탁했다.

특히 어촌어업과 양식어업 중심의 마을인 두 지역에 자연재해나 태풍 등으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사업비 투자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재해 예방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국가어항인 남포항, 고성명소인 해지개다리와 연계해 관광지로써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고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외부

인 관광객을 유치할 관광 아이템과 볼거리를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성근 군수는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발 앞선 관광 요소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는 필수적이다. 군민의 삶의 질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점식 국회의원 또한 “고성군의 이러한 노력이 경제발전과 어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어촌관광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분천 한겨울 Santa Village

산타마을



2022.12.17 ~ 2023.2.12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타마을 일원

개장 및 개장축하공연, 크리스마스 캐롤 페스타, 푸드트럭 먹거리존,
 산타마을 캐릭터 파티, 인생네컷 사진관, 산타 썰매

대전시, 과학예술로 앞장선 미래도시 총망라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미래도시'도록 및 연구교육아카이브 발간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송승혜)은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의 결과를 총망라하여 도록 및 연구·교육 아카이브를 인쇄본과 전자책으로 동시에 발간한다.

송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미래는 꿈꾸는 사람이 창조합니다. 2022 과학예술비엔날레 '미래도시'의 기록을 총망라하여 도록과 연구·교육 아카이브로 발간하고 무료로 공유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모드를 위한 예술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라고 발간의 취지를 밝혔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 도록은 송승혜 관장 및 미술관 비엔날레기획팀, KAIST 우운택, 김대영, 김영철 교수의 논고를 살펴볼 수 있다. 전시 구성에 맞추어 '모두를 향한 테라폴리스', '한때 미래였던', '∞(무한) 교차로', '도시 곳곳에서' 시티프로젝트'로 22작가(팀)의 참여 작품들을 수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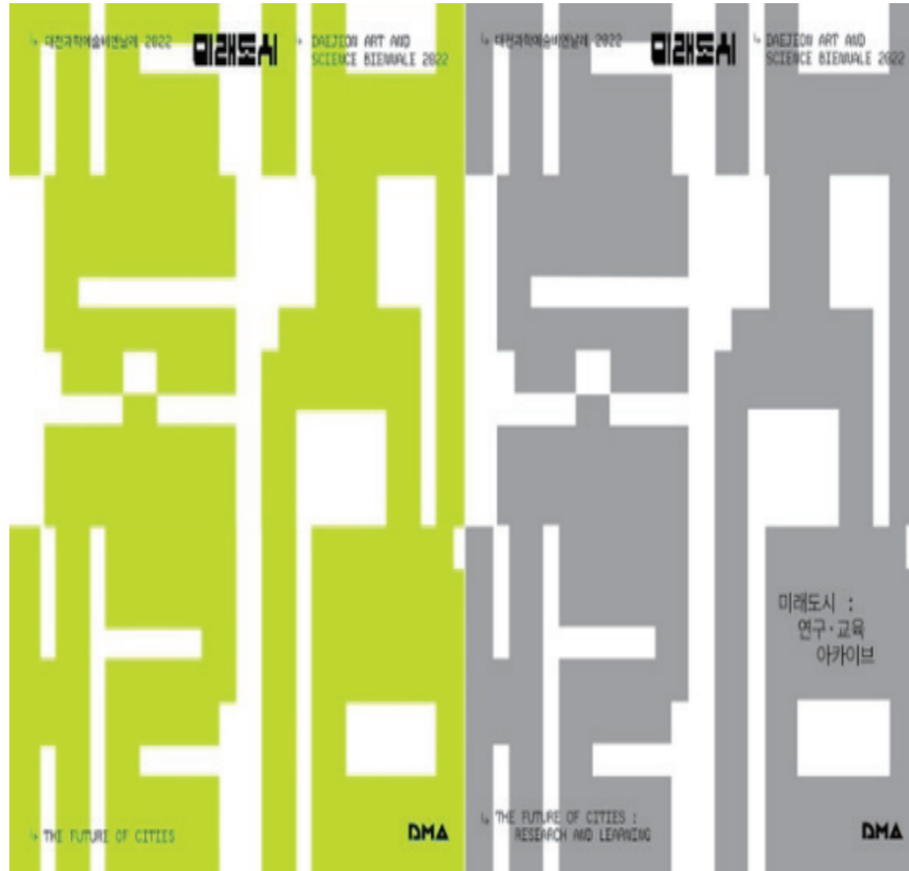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

도시» 연구·교육 아카이브는 이번 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 자료집으로 전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기록했음에 의의가 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의 연구·교육 아카이브는 △ 2021년 송승혜 관장초청대담 “미래도시: 디지털 환상곡”, △ 2022년 송승혜 관장초청대담 “더 나은 미래”, △ 국제 콜로키움 “미래도시: 찬란 혹은 폐허”, △ 워크숍과 라운드테이블 “미래도시: 모두를 향한 테라폴리스-Plan B”, △ 큐레이토리얼 토크 “미래도시의 큐레이터는 누구인가?”, △ 작가와의 대화 “미래도시: 불안 혹은 희망”, △ 게임과 예술 워크숍 “환상의 미래도시”, △ 교육프로그램 “미래를 꿈꾸는 교육”, △ 연계 프로그램 “미래도시: 우리의 도시, 모두의 미래”의 기록을 총망라했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 도록 및 연구·교육 아카이브는 전자책은 교보문고에서 12월말 부터 무료로 읽을 수 있다.

김원호/기자



충청남도, 백제·K-팝으로 손잡는 '한·일의 미래'

도, 18일 고교생 등·방문단 파견...현지에서 공연·교류의향 체결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소년들이 백제와 K-팝으로 공감대를 넓히며 손을 맞잡는다.

충남도는 미래 세대 우호 증진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도내 고교생 등으로 일본 방문단을 구성, 18일 파견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활동하는 일본 방문단은 현지에서 K-팝 공연과 백제문화유적 탐방, 고등학교 간 교류 활동 등을 진행한다.

일본 방문단은 홍남표 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홍성 광천 한국 K-POP고등학교 박병규 교장과 교사, 학생 등 17명, '우리동네 백제문화유적 UCC 공모전' 수상자 4명 등 총 25명으로 꾸렸다.

일본 방문단은 첫 날인 18일 아스카촌 소재 백제문화유적인 석무대 고분을 시찰하고, 나라현 가시하라시로 이동해 가시하라시장과 아스카촌 다나카 유지 교육장을 접견한다.

이후 가시하라시에 위치한 이온몰에서 K-팝 공연을 갖는다.

둘째 날인 19일에는 오사카부에 소재한 코리아국제중고등학교를 찾아 K-팝 공연을 진행, 대한민국의 매력을 전한다.

두 학교는 또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 본격적으로 교류 활동을 펼쳐 나간다.

같은 시간 UCC 수상자들은 나라현 명소인 나라 공원과 나라마치, 백제문화유적인 법흥사 등을 방문한다.

또 홍남표 단장 등 3명은 가나자와로 발걸음을 옮겨 현지 윤봉길 의사 수감지 및 암매장지를 찾아 참배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정신을 되새긴다.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가 서거한 지 90주기가 되는 날이다.

사흘째인 20일에는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대사와 가스가타이샤 신

사를 견학하고, 나라현청을 찾아 아라이 쇼고 지사를 접견한다.

일본 방문단은 이어 나라현립국제고등학교를 찾아 나카오 유키지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양 학교 학생들 간 교류의 장도 편다.

광천고가 전신인 한국 K-POP고는 2019년 국내 유일 '특성화 계열 K-팝 공연예술과' 학교로 지정받았다.

전공 과정으로는 댄스와 댄스보컬, 보컬, 랩, 전자음악 작곡 등이 있다.

2020년 설립한 나라현립국제고는 스웨덴과 코스타리카 등 각국 교환학생이 재학 중이며, 제2외국어 전공에 한국어가 포함돼 있다.

학교 간 교류 이후 방문단은 윤봉길 의사가 수감됐던 위수감옥터를 방문해 참배하고, 주오사카총영사관을 방문한다.

홍남표 과장은 “앞해 앞선 두 차례의 일본 방문이 행정·경제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이번 방문은 높은 문화의 힘을 활용한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백제왕도인 충남이 보유한 유구한 백제문화와 K-팝 등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지방외교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3개 교류단체를 방문하는 등 막혔던 국제교류 물꼬를 다시 텄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도가 개최한 한·일 문화포럼에는 시즈오카와 구마모토 현 부지사가 충남을 방문했다.

지난 10월에는 공식 초청으로 일본 방문단을 꾸려 시즈오카현 제8회 세계차축제를 찾아 세계농업유산인 금산인삼의 우수성 등을 알린 바 있다.

최정근/기자

화려한 빛과 음악 광화문광장의 밤 수놓는다... '서울라이트 광화' 19일 개막

서울시, 12.19.(월)~31.(토) 매일 18시~22시 광화문광장 일대 웅장한 빛의 축제

19일 저녁 6시, 어둠이 내려앉은 광화문광장 일대를 화려한 빛과 음악이 가득 채운다. 광화문광장에 새롭게 설치된 6m 높이의 조명기둥(라이팅 폴) 22개에서 뿜어나온 빛 줄기가 밤 하늘을 수놓고, 광화문광장 대형 미디어파사드와,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주)KT빌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 '광화벽화'에서는 웅장한 빛의 쇼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광화문광장을 희망의 빛으로 채울 대규모 미디어파사드 쇼 '서울라이트 광화'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꼭 가봐야 할 서울의 새로운 야경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라이트 광화'는 19일부터 31일까지(13일 간) 매일 저녁 18시부터 22시까지, 광화문광장 전역과 광장 인근 건물 3개소(세종문화회관, 역사박물관, KT빌딩)에서 펼쳐진다.

'서울라이트 광화'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 일대를 '미디어아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서울시가 준비한 첫 신호탄으로 주변 일대 건물 입면에 화려한 미디어파사드를 수놓아 '빛을 통한 감성 도시 서울'을 알린다.

같은 기간, 광화문광장에는 '2022 서울 빛초롱'과 5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광화문광장 마켓'이 동시에 열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은 광화문광장이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찬다.

매시 정각에는 메인 쇼에 해당하는 웅장한 '시그니처 쇼'가 10분 간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이후 50분 동안 각 장소별로 다양한 주제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토)에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22시부터 10분간 '신년 희망메시지'로 '서울라이트 광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우선, 매시 정각 10분간 펼쳐지는 '시그니처 쇼'는 '세종의 하늘, 새로운 빛을 입다'라는 주제로, 총 3장으로 구성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22개의 라이팅 폴(lightning pole)의 화려한 움직임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주)KT빌딩 가림막 미디어파사드, 역사박물관 '광화벽화',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에서 웅장한 쇼가 펼쳐진다.

제1장 세종의 상상,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을 여는 '빛의 탄생' : 세종의 상상에서 시작된 7개의 별 '칠성산'에서 시작한 시간이 오늘날 광화문광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담았다.

제2장 광장 속의 시간 그리고 우리 '창의의 시대' : 조선의 육조거리 광

장이 현재로 이어지고, 그동안 광화문과 맞닿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간을 채우는 모습을 그렸다.

제3장 함께 바라보는 광화문 '여민락, 함께 즐기다' : 세종대왕이 직접 작사·작곡한 '여민락' 백성들과 함께 즐기다'의 의미를 담아 광화문광장이 새로이 열리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모두가 함께 광장을 즐기는 모습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했다.

'시그니처 쇼'가 끝나고 개별 장소별로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쇼(사이트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 전면에는 경쾌한 음악과 서울의 낮익은 풍경을 함께 보는 '비바 서울(Viva Seoul)'을 비롯해 역사박물관,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등에서 볼 수 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비바 서울) : 서울의 낮익은 풍경을 회화적인 비주얼로 표현한 영상과 경쾌한 음악의 조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역사박물관 '광화벽화'(EXIT: 한계를 넘어) : 공간과 공간을 경계 없이 통과하는 사람의 모습을 한 조명 캐릭터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빛을 투과해서 옥상의 조명 빛으로 솟아오르며 환상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하여 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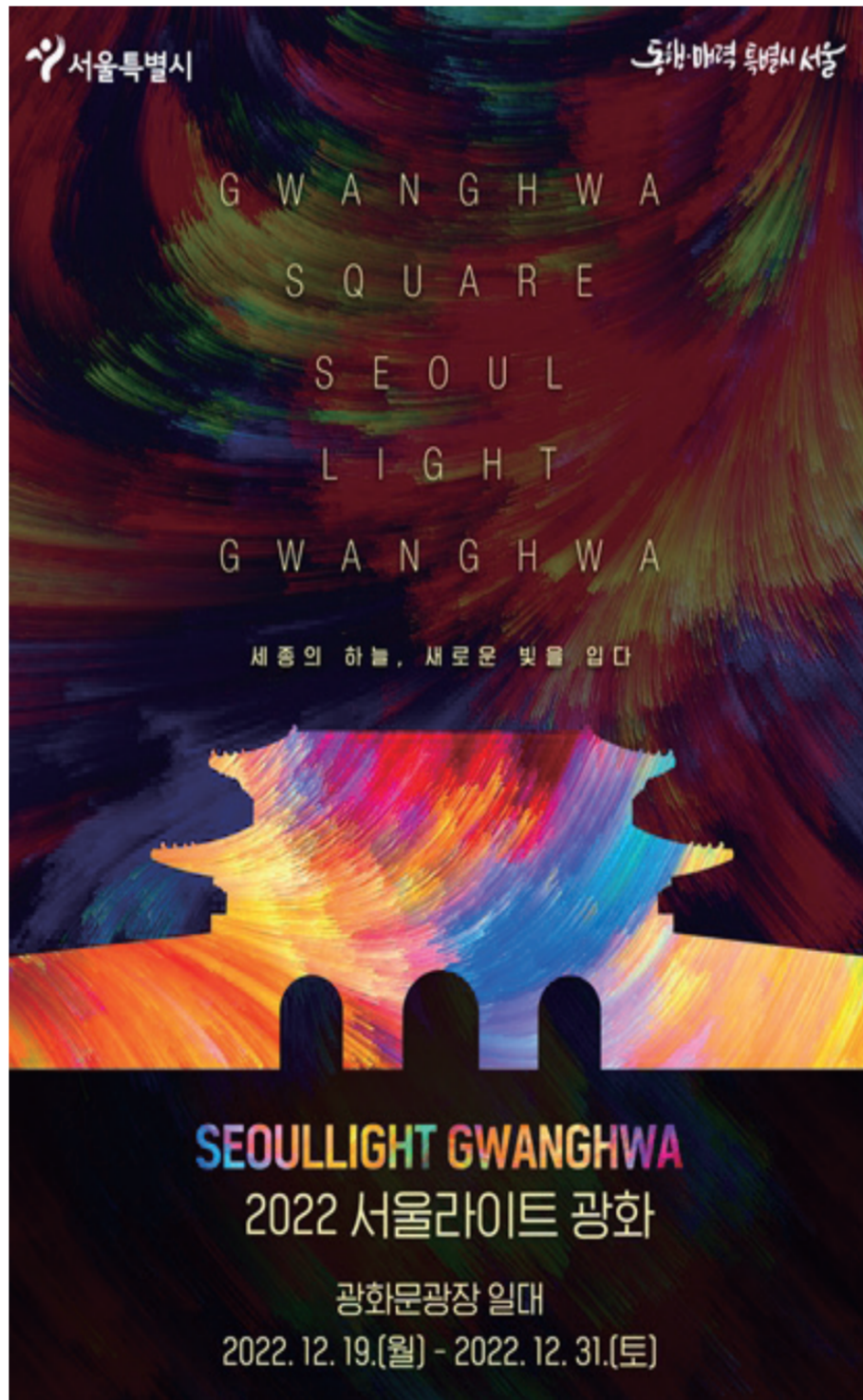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서울라이트 광화' 연계전시) : 국내 유명작가 2인(하준수, 박제성), 해외 유명작가 2인(막심 제스코브, 위치엔 쏘이)이 참여해 '자연·도시·미래의 공존'을 주제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상적인 미디어아트 전시를 준비했다.

또한, 단순히 보는 걸 넘어 시민들이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어보는 참여형·체험형 미디어아트도 운영된다. KT건물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이는 '돌치돌치 서울'과 세종문화회관 앞 데크에 설치되는 '시간의 틈'이다.

'돌치돌치 서울'은 광장 중앙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비치는 행동들이 KT 건물 외벽에 거대한 캐릭터로 연동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시간의 틈'은 미디어아트로 둘러싸인 새로운 긴 박스 안에 들어가서 환상적인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라이트 광화'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중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한자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해 상시 순찰한다. 많은 인원이 밀



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24(토), 31일(토)에는 평상시보다 많은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안전에 만반의 준비를 했다.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에 근거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관할구청의 심의를 마쳤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 현장 안전 점검과 각 기관장 주제의 사전 안전 대책회의를 통해 안전한 행사를 대비했다.

'서울라이트 광화'의 시그니처 쇼 구성과 콘텐츠 기획(큐레이션)은 100주년 서울전국제천 개 폐회식 제작을 감독했던 오장환 감독이 직접 지휘했다.

오장환 감독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마스터플랜 수립 개발협력 감독, 부산국제관광도시 유치 프레젠테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크리스마스 행사 진행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문정진)은 12월 24일(토)~25일(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박물관을 찾은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동안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와 <박물관을 찾아 온 빼에로 산타>, <방울방울 가랜드>을 진행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는 4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나무 구슬과 끈 등 여러 재료를 탐색하고 크리스마스 장식(오너먼트)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지지씨멤버스(<https://members.ggcf.kr/>)에서 미리 접수 가능하고, 잔여 인원에 한해 당일 선착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박물관을 찾아 온 빼에로 산타>는 산타로 분장한 빼에로가 꽃, 강아지 등 다양한 모양의 요술 풍선을 만들어 선물하는 프로그램이다. 빼에로

는 3층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시실 위주로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방울방울 가랜드>는 5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나뭇가지, 솔방울, 메타세콰이아 열매 등의 다양한 자연물을 이용하여 가랜드를 만들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담당자는 “행사를 통해 가족 및 이웃과 정을 돈독히 하는 시기로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 → '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사전 예매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리집에서 미리 입장권을 예매해야 하며, 방문 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예매가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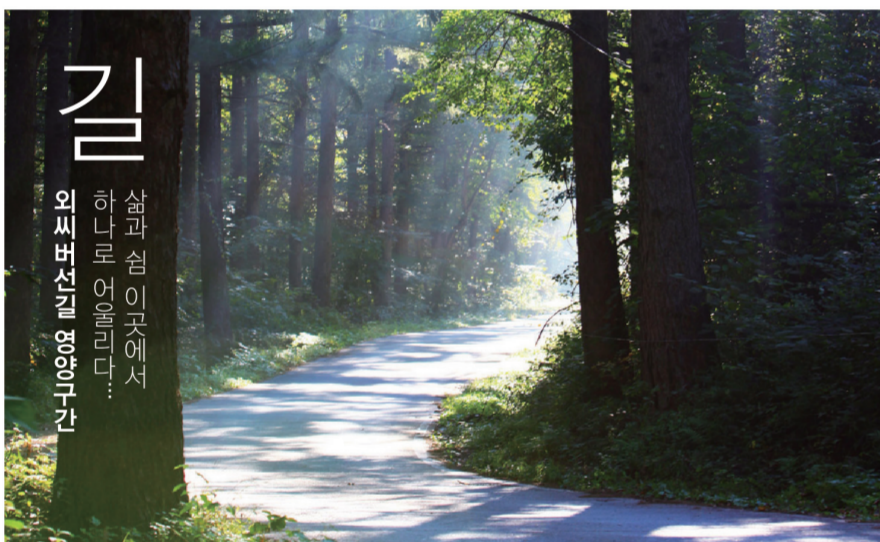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 O O 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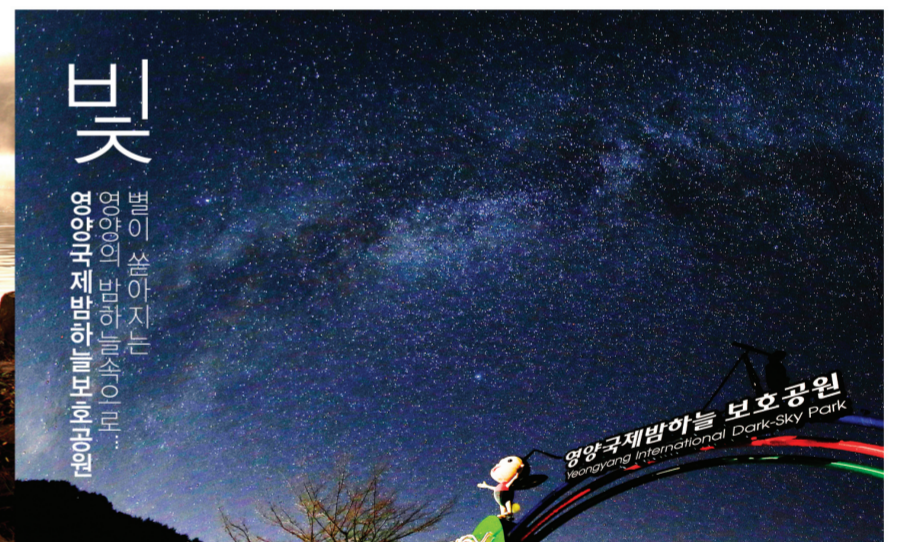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물

영양의 푸른빛이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보호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